



미래를 여는 당신의 참여가
우리를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의 내일을 만듭니다.

with
KWSE



KWSE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Woman Scientists and Engineers

[34126]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B동 409호
T. 042-863-8310~5 F. 042-863-8313 E. kwse@kwse.or.kr H. www.kwse.or.kr

96

SUMMER 2026

참여로 잇고
내일을 그리다



KWSE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Woman Scientists and Engineers

Contents

04 인사말

임채덕 |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16대 회장

05 격려사

윤혜온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박세웅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07 KWSE 회원의 날 - 미래융합 포럼

08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국회 포럼

경험을 국가의 자산으로, 연결을 새로운 일로

11 사업소개

2026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유관단체 지원 사업

12 KWSE 인사이드

AI를 마주한 네 개의 시선 - 4인4談

16 Hello, 여협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8 챌린지 : 나에게 도전이란

20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라

이향숙 | 이화여자대학교 제18대 총장

25 KWSE 여성과학기술인회관 건립

26 과학외교 : KWSE인 세계속으로

CKC, UKC, EKC

28 일상너머, 한걸음

공주 골목서가 '오래된 질문'

30 지부소식

전라제주지부, 부산울산경남지부, 대구경북지부

32 과학기술 이슈 브리프

바이브 코딩, 연구 현장 적용으로 성과 확대 이뤄지길

34 KWSE 뉴스

40 수상소감

2026 과학기술 정보통신 유공자 정부 포상

표지설명 :

세대와 국경을 넘어 여성과학기술인이 함께 어우러져,
참여의 힘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담아낸 표지.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NEXT INTELLIGENCE

기술의 눈을 통한
사람의 시선으로고려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서울캠퍼스: 2026.09.07.(월) 10:00 - 09.09.(수) 17:00

세종캠퍼스: 2026.09.07.(월) 10:00 - 09.11.(금) 18:00

접수처: oku.korea.ac.kr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KWSE 소식지

발행인: 임채덕

편집위원장: 신영숙

편집위원: 김양희, 김민솔, 김소희, 김영숙, 김은경, 민혜정, 서지현, 옥수현,
이지형, 조근희

사무국: 김혜선, 민의정, 변애란, 송혜진, 최한나

발행처: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B동 409호

전화: 042-863-8310~5

팩스: 042-863-8313

E-mail: kwse@kwse.or.kr

홈페이지: www.kwse.or.kr

디자인: 디자인에스

우리의 연결과 참여가 KWSE의 미래를 만듭니다

임채덕 제16대 회장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낮의 햇살은 여전히 뜨겁지만, 어느새 여름의 끝자락에 들어선 듯합니다. 바쁜 연구 현장과 대학, 기업 등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여러 현장에서 회원 여러분을 만나며 다시 느낀 것은, 모든 변화와 성장은 결국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고민을 함께하며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히 연결되고, 그 안에서 KWSE의 가치도 한층 깊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기술의 큰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국제 공동연구의 확대는 과학기술계에 새로운 질서와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빠를수록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 있으며, 그 힘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과 자발적인 참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는 30여 년 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과 연대를 위해 심 없이 걸어왔습니다. 그 역사는 수많은 회원의 열정과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제16대 KWSE는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 참여 중심의 KWSE'라는 방향 아래 회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참여와 연결의 기회를 넓혀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은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니라 KWSE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는 KWSE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자산이자 변화의 동력입니다. 회원의 목소리가 모이고 참여로 이어질 때 KWSE의 미래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올해 KWSE는 회원 간 연결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개최되는 「2026 KWSE 미래융합 포럼」은 AI 시대의 융합기술과 리더십, 협력을 함께 고민하고, 회원들이 서로의 연구와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인연과 협력의 가능성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와 세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세대와 전공, 학계와 산업계를 잇는 만남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의 씨앗이 자라나며, 회원 모두가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KWSE는 회원 여러분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며, 회원의 목소리가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의견 하나, 새로운 제안 하나, 새로운 만남 하나가 KWSE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KWSE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화의 시대, 우리의 참여는 서로를 연결하고, 그 연결이 KWSE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한 분의 연구가 곧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역사입니다

윤혜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이사장 윤혜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답을 구하는 모든 과정에서 AI가 연구의 방법과 속도를 바꾸는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서로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만나 새로운 질문을 만들고 해답을 찾아갈 때, 과학기술의 가능성은 더욱 넓어 집니다. 국경을 넘어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 다른 관점과 해법을 연결하는 국제협력과 국가 간 과학기술 외교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이러한 과학기술 외교와 국제협력의 현장에서 오랜 시간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INWES), 아시아태평양네트워크(APNN) 등을 통해 KWSE는 세계 여성과학기술인들과 교류하고 연대하며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저 또한 2018년~2019년 KWSE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국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깊이 경험하고, 그 발전을 위해 함께해 왔기에 회원 여러분의 노력이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KWSE가 오랜 기간 노력해 온 국제협력의 성과는 우리 여성과학기술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WISET은 지난해 'APEC 여성 STEM 심포지엄'을 개최해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내외 여성과학기술인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KWSE가 다져 온 경험과 연대가 더 넓은 국제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와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창립 이후 33년 동안 2,500여 명의 회원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헌신이 모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 단체의 일원으로, 또 회장으로 함께해 온 사람이기엔 그 축적의 무게와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쌓아 오신 경험과 국제협력의 성과가 더 넓은 세계와 만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WISET도 그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의 더 큰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성취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시작 ETRI도 함께하겠습니다

박세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박세웅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연구와 도전을 이어가고 계신 여성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1993년 창립 이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역량을 펼치고 더 큰 역할에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과학기술 정책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고, 학술교류와 국제협력의 장을 넓히며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동 무대를 꾸준히 확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과학기술계의 다양성과 역량 또한 한층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오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와 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AI를 중심으로 기술과 산업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과학기술의 혁신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라지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도 이제 추격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앞서기 위해서는 연구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익숙한 답을 찾기보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분야와 조직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협력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 깊이 몰입하고 창의성과 연구본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때 세상을 바꾸는 혁신도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여러분은 이미 각자의 연구현장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를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스스로의 가능성에 한계를 두지 않고 더 담대한 질문과 더 큰 연구에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세계적 수준의 성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산업과 사회 곳곳에서 쓰이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TRI도 'AI·DX 혁신으로 이끄는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향해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하고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분야와 조직의 경계를 넘어 더 큰 연구와 더 높은 성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혁신에 힘쓰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는 길에 ETRI도 함께하겠습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더 큰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빛나는 성취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KWSE 미래융합 포럼

AI 시대의 융합기술, 리더십, 그리고 협력

일자_ 2026. 9. 17.(목) 10:00-18:00

장소_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기조강연

AI 3대 강국 -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박영선 한국여성의정 대표(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요행사

개회식

개회식 및 제3회 코스맥스 여성과학기술인상 시상식

1부) 산학연협력세션

AI 기반 여성 생애주기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라운드 테이블

2부) 융합기술세션

AI기반 과학기술 융합워크숍

* 인공지능, 천문우주, 뇌과학, 에너지분야 전문가 강연

3부) 리더십세션

리더십 챌린지 및 소통 이벤트(팀 빌딩)

리더십 토크 및 패널토론

부대행사

컨설팅 부스, KWSE 분과위원회 소개

문의처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사무국, 042-863-8310~2, kwse@kws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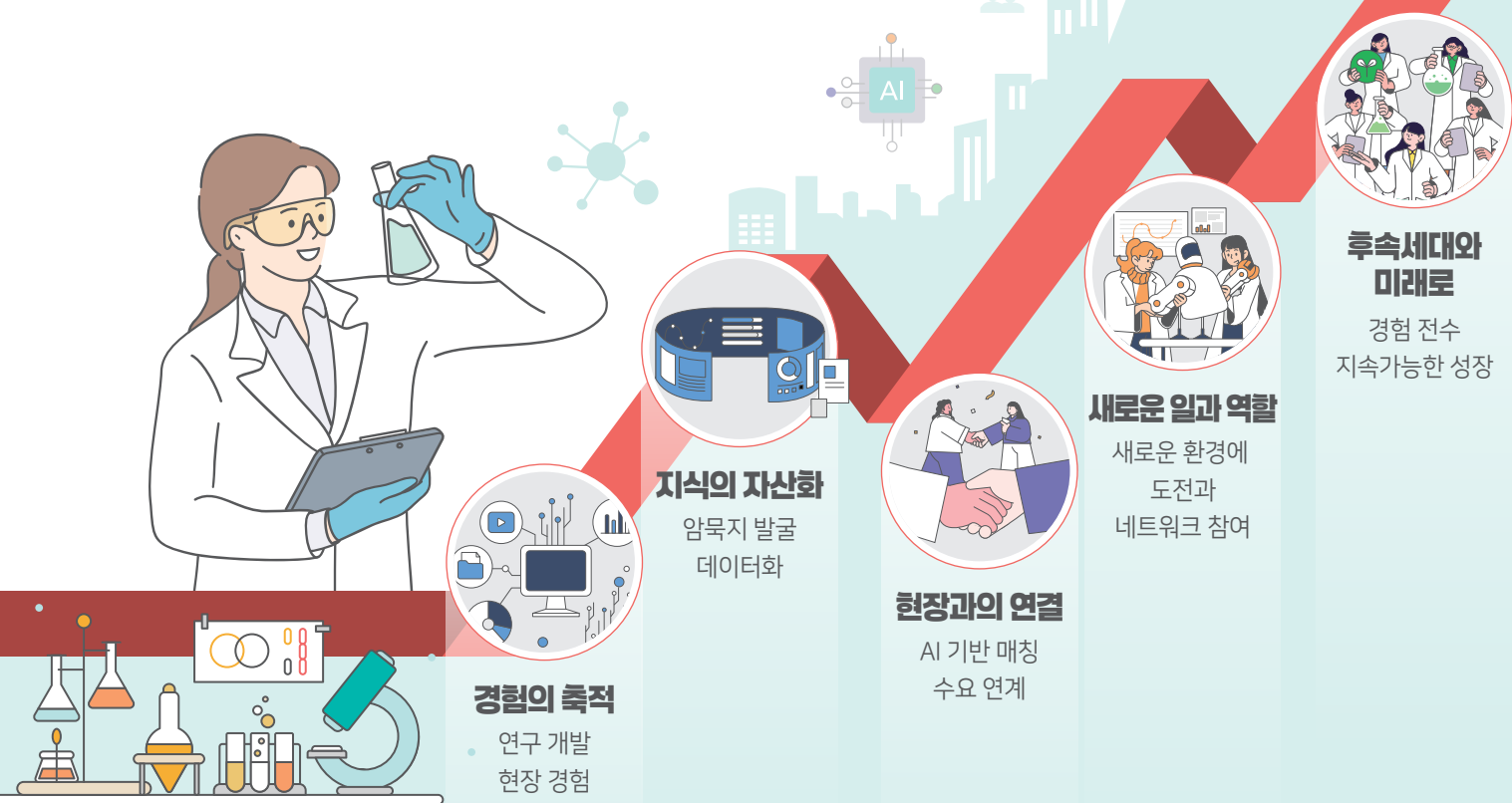
2026 KWSE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국회 포럼

경험을 국가의 자산으로, 연결을 새로운 일로

이승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온누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이 지닌 경쟁력의 핵심은 오랜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암묵지'에 있다. 연구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실패의 교훈, 연구기획과 조직운영 경험, 협력 네트워크와 현장 판단력은 문서나 데이터만으로 온전히 전수하기 어렵다. 저출생·고령화로 과학기술인력 감소가 예상되고 AI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지금, 이러한 암묵지를 발굴해 사회와 산업의 수요에 연결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의 경험은 지나간 경력이 아니라,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국가의 지식자산이다.**



수십 년간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은 한 사람의 경력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활용해야 할 자산이다.

그 경험을 어떻게 발굴하고 이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새로운 역할과 기회로 연결할 것인가.

'2026 KWSE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국회 포럼'은 '경험의 국가 자산화'라는 화두를 던지고, 이를 현실로 이어가기 위한 가능성과 과제를 함께 모색했다.

개회식에서 황정아 의원은 돌봄과 연구를 함께 감당하며 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헌신해 온 여성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이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대표 발의한 「시니어 과학기술인 지원법」의 국회 통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일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추진한다"는 자세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고,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의 숙련된 경험이 사회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의 통과는 출발점이다. 이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전문성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게 해야 한다.

임채덕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은 50세 이상 여성과학기술인 비율이 2019년 15.7%에서 2023년 18.8%로 늘어난 만큼, 이제는 이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2002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끈 데 이어 2023년 고경력여성과학기술인활동센터를 개소하며 이 흐름을 뒷받침해 왔다. 그는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의 경험은 과거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그 활용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선미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과총이 앞으로도 93개 회원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 현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의 논의가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했다.



개회사_ 황정아 국회의원



환영사_ 임채덕 회장



축사_ 강선미 회장



발제1_ 안부영 센터장



발제2_ 정연정 위원장



고경력여성과학기술인활동센터

패널 토론



송미영 부사장(주)티제이플렉스



원미숙 부소장(동덕대학교)



장은숙 소장(스마트융합연구소)



한선화 원장(前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형주 관장(前국립과천과학관)



패널 토론

정연정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업기술위원장은 재직자의 63.3%가 퇴직 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경력 이음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짚었다. 전문성에 맞는 정보와 네트워크, 경력설계와 전직지원이 함께 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부영 고경력여성과학기술인활동센터 센터장은 여성과학기술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축적된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퇴직과 돌봄 등으로 수십 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사장되는 '제2의 경력단절'을 막고, 이를 산업계의 수요와 후속세대 육성에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력이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이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패널토론에서 원미숙 부소장은 경력이음은 퇴직 후가 아니라 은퇴 전부터 준비해야 하며, 당사자의 도전과 네트워크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은숙 소장은 시가 대신하기 어려운 숙련 과학자의 암묵지를 중소기업의 기술 난제와 연결한다면 고경력자가 '현장 해결사'로 활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선화 전 원장은 고경력자의 경험에 SI와 데이터 활용 역량을 더하고, 현장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형주 전 관장은 기존 인력·경력 지원 시스템을 우선 연계하면서 시행착오와 문제 해결 경험 같은 암묵지를 어떻게 기록하고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심은 사람을 모으는 데 있지 않고,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현장의 수요에 정확히 연결하는 데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고경력여성과학기술인활동센터의 다음 과제와 맞닿아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고경력 회원 조사를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전공과 경력, 문제 해결 경험과 활동 가능 분야를 담은 '활용 가능한 전문가 정보'로 발전시키고,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R&D 기획과 기술자문부터 연구데이터 검증, 교육·멘토링까지 고경력자의 경험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전문가와 연결해야 한다. 소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문제 해결 사례를 만들고, 경력전환 지원도 퇴직 이전부터 시작해 SI·데이터 활용 등 변화하는 환경에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의 경험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변화하는 기술과 현장의 수요에 연결해 다시 일과 사회적 기여의 기회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고경력여성과학기술인활동센터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길이다.

2026 KWSE 사업소개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협력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역량을 높인다.

과학기술유관단체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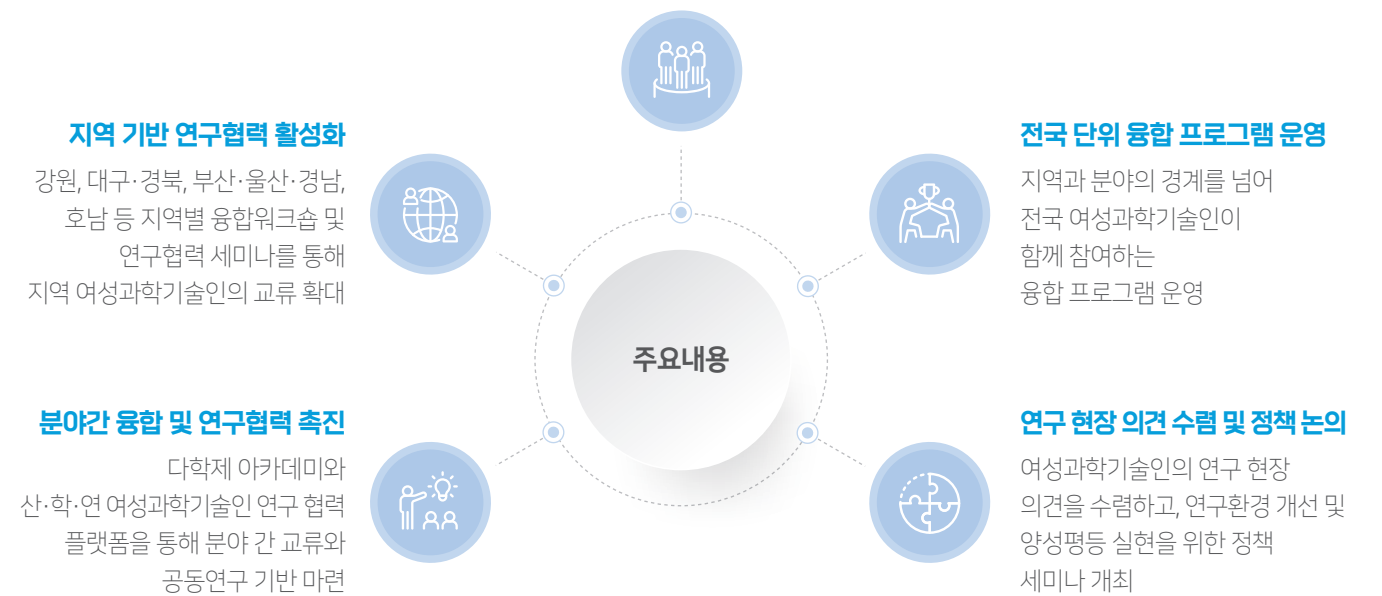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분야와 지역을 넘어 연구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유관단체지원사업을 지원을 받아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협력을 통한 여성과학기술인 연구 역량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분야와 지역을 넘어 실질적인 연구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등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산·학·연 여성과학기술인의 현장 경험과 의견을 정책 제안으로 연결하여 과학기술 균형발전과 연구 현장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분야와 지역을 연결하는 협력의 폭을 더욱 넓히고,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여성과학기술인대회 공동개최

여성과학기술인의 성과를 공유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전국 단위 행사 공동 개최



AI를 마주한 네 개의 시선

4人4談



AI는 이제 연구실의 낯선 기술이 아니라, 연구의 방법과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는 일상의 도구가 되고 있다. 논문을 찾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일에서부터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까지, AI와 함께하는 연구의 풍경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연구자들은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무엇을 AI에게 맡기고, 무엇을 여전히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할까. 그리고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시선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디지털 헬스케어, 멀티모달 AI, 국가R&D 정보서비스, 국방 AI. 서로 다른 연구 현장에서 AI를 마주하고 있는 네 명의 여성과학기술인을 만났다. AI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이야기가 향하는 곳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할수록 결국 더 중요해지는 것은 사람의 질문과 판단, 그리고 책임이라는 것.

AI를 마주한 네 사람의 서로 다른 시선과 생각을 들어본다.

Q. 안녕하세요, 먼저 각 기관에서 현재 집중하고 계신 AI 관련 연구나 프로젝트에 대해 KWSE 회원들께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Dr. 박지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한의학적인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하였고, 현재 연구원 창업으로 설립한 (주)온리마음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지훈련 및 돌봄 콘텐츠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Dr. 강점자 ETRI에서 멀티모달 AI 기반의 음성·영상 이해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의 내용을 이해하는 AI'를 만드는 연구입니다. 생성형 AI와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화자를 구분하고, 음성인식 오류를 줄임과 동시에 긴 회의를 자동으로 구조화·요약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협업을 더 효과적으로 돕는 AI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Dr. 김은경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S)의 홈페이지 서비스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며, 국가R&D 데이터가 연구자와 국민에게 보다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과제·성과·연구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검색·추천·챗봇 서비스 고도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Dr. 신영숙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인공지능기술원 소속으로, AI 연구 개발의 핵심 기반인 GPU 인프라(국방지능데이터센터)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 소부대 전장지휘결심지원을 위한 전장상황인식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개발 기술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모의기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Q. 서로 다른 기관에서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이셨는데, 연구 현장에서 체감하는 최근 AI 기술 트렌드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Dr. 박지은 최근 가장 큰 변화는 AI 모델의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는 동시에, 이를 실제 연구와 현장에 활용하는 수준의 격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는 같은 건강 데이터를 가지고도 AI를 활용해 질병 위험을 예측하고 논문 작성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자가 있는 반면, 여전히 단순한 자료 검색이나 통계 분석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용 역량의 차이도 있지만, 어디까지 AI를

활용하는 연구자가 있는 반면, 여전히 단순한 자료 검색이나 통계 분석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용 역량의 차이도 있지만, 어디까지 AI를 활용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윤리적 이슈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Dr. 강점자 최근 AI 연구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정 문제를 푸는 모델에서 여러 도구를 활용하는 AI 에이전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텍스트를 넘어 음성·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이해하는 멀티모달 AI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경쟁의 기준이 성능에서 신뢰성으로 옮겨가며, 설명 가능하고 책임 있는 AI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Dr. 김은경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AI가 질문에 답하는 도구에서 실제 업무를 이어서 처리하는 도구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검색, 자료 분석, 코드 실행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RAG로 외부 데이터의 근거까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NTIS 같은 공공 서비스는 유창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보다,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오류 발생 시 원인을 추적해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어야 신뢰를 얻습니다.

Dr. 신영숙 LLM 기술의 발달로 국방 연구에서도 LLM 활용 과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딩 에이전트를 활용해 개발 생산성이 현저히 향상된 점이 큰 변화입니다. 한편, 대형모델 운용에 필요한 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구소 데이터센터 역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인프라 자원을 투입·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최근 생성형 AI가 연구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논문 조사, 데이터 분석 등 실제 연구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Dr. 박지은 저는 AI가 잘하는 영역과 한계가 있는 영역을 구분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연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거나 연구 트렌드를 분석하고, 많은 논문과 데이터를 빠르게 요약하는 데는 AI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반면 정확한 논문이나 레퍼런스를 찾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제시하는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연구자의 판단을 대체하는 도구라기보다 탐색과 정리의 속도를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고, 출처와 핵심 정보는 반드시 원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Dr. 강점자 생성형 AI는 연구 전반을 지원하는 파트너입니다. 문헌 조사



박지은 온리마음 대표/한국한의학연구원



강점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은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신영숙 국방과학연구소

부터 코드 작성, 데이터 분석, 실험 결과 비교, 논문 초안 검토까지 폭 넓게 활용해 연구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미공개 데이터는 외부 서비스에 입력하지 않는 보안 원칙과, AI 결과는 반드시 실험과 재현으로 검증하며 최종 판단은 연구자가 책임 진다는 원칙입니다.

Dr 김은경 연구에서 생성형 AI를 선행연구의 핵심어를 정리하거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코드의 초안을 작성할 때 활용합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원인 후보를 좁히고, 사용자 문의를 유형별로 정리 하는 데도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NTIS 홈페이지에 쌓이는 문의와 오류 이력을 함께 살펴보면 반복되는 불편과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AI의 분석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국가 R&D 데이터와 운영 기준을 대조해 검증한 뒤 업무에 반영합니다.

Dr 신영숙 국방연구는 보안상 폐쇄망 환경이므로 독자 개발한 AI서비스 '애디(Add+i)'를 활용합니다. 규정 검색·요약·다이어그램작성부터 SW 개발 전 과정에 AI를 접목 중이며, 특히 코딩 에이전트의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최근에는행정 분야까지 AI를 도입하는 개발이 진행 중 입니다. 인터넷 환경에 비해 제약은 있지만, 일하는 방식의 AI 전면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판단됩니다.

Q. 만약 AI에게 딱 하루 동안 나의 연구를 완전히 맡길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시키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아무리 AI가 발전하더라도 이 영역만큼은 인간 연구자인 내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Dr 박지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솔루션보다 실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중요 합니다. AI에게 하루를 맡긴다면, 연구 결과를 실제로 사용하게 될 사람들 을 직접 만나 인터뷰해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AI나 연구자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제시할 수 있지만, 결국 좋은 연구의 출발점은 사용자가 실제로 겪고 있는 불편과 필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Dr 강점자 AI에게 하루를 맡긴다면 논문 조사와 반복 실험처럼 시간이 많이드는 작업을 맡기겠습니다. 다만 결과는 정답이 아니라 '검증할 후보 목록'으로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연구자는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 방향을 정하며, 그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연구의 방향성과 책임은 끝까지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r 김은경 AI에게 하루를 맡길 수 있다면, 먼저 그동안 쌓인 이용자 문의와 접속 로그, 오류 이력을 훑어 반복되는 불편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장애 징후를 찾아보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먼저 고칠지 정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설계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 이용자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그 결정에 누가 책임질지는 결국 사람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Dr 신영숙 하루 동안 AI에게 연구를 맡길 수 있다면 소모적인 각종 행정 업무와 반복적인 문서 작성을 완벽히 자동화해 두고 싶습니다. 연구자로서 집중하고픈 깊은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만 전념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하더라도 연구의 본질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일은 결국 인간 연구자가 직접 해야 할 고유한 영역이자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Q. AI 연구자로서 바쁜 연구 일정 속에서도 지키고 있는 소소한 루틴이나, 연구와 삶의 균형을 위해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Dr 박지은 연구를 하고 또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정말 바쁘게 살다보니,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때로는 성과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 압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이 많아서 운동할 시간도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일부러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한 근력운동도 좋지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Dr 강점자 좋은 아이디어는 잠시 멈춘 순간에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 니다.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연구와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전공과 무관한 논문을 일부러 읽으며 새로운 관점을 얻으 려고 합니다. AI 분야는 변화가빠르지만 학회와 세미나, 다양한 연구자 들과의 교류를 통해 시야를 넓히며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Dr 김은경 서비스 개발과 운영을 함께 맡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의나 장애가 하루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처리한 일과 남은 업무를 간단히 기록합니다. 생각이 막히거나 긴장이 쌓일 때는 요가와 걷기, 등산으로 머리를 식힙니다. 가장 좋아 하는 작은 보상은 한 가지 문제를 끝까지 해결한 뒤 반려견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일의 긴장을 내려놓고 다시 차분 하게 시작할 힘을 줍니다.

Dr 신영숙 건강과 수면을 위한 저녁 수영, 뇌 건강을 돕는 매일 10분.

음독, 삶의 중심을 잡는 신앙활동이 저의 소소한 루틴입니다. 스스로 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은 연 2회 떠나는 2박 3일의 '침묵피정'입니다. 지루할 거라는 생각과 달리, 온전히 내면에 집중하는 침묵의 시간은 기대 이상으로 큰 힐링을 받게 되어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Q. AI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협업 방식이나 문제 해결 노하우를 소개해 주세요.

Dr 박지은 AI가 고도의 전문 분야이다 보니, 타 분야의 연구자들은 종종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가에게 일임하고 도출된 결과만을 수용하고 합니다. 타분야연구자들이 AI를 원리를 모르는 '블랙박스'로 남겨두어선 안 됩니다. 직접 알고리즘을 개발할 필요는 없으나, 데이터 처리 과정과 결과의 한계 및 편향성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즉, AI 시대 연구자의 핵심 역량은 AI의 결과를 주체적으로 질문하고 책임감 있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Dr 강점자 멀티모달 AI는 다양한 분야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문제를 함께 정의하고, 실제 사용 환경을 함께 이해하며, 실패를 빠르게 공유 하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AI는 뛰어난 알고리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Dr 김은경 저는 AI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술보다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먼저 살핍니다. 기획자, 개발자, 데이터·운영 담당자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과 오류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기능은 일부 서비스에 먼저 적용해 실제 문의와 이용 반응을 확인하며 보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의 실수부터 찾기보다 데이터가 수집·가공되어 화면에 제공되는 전 과정을 따라가며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편입니다.

Dr 신영숙 기술 분야를 막론하고 협업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AI로 단기간에 결과물을 만들 수는 있어도, 개발의 목적과 방향, 세부 기능과 표현 방식은 결국 인간의 협의와 판단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일 수록 연구진 간의 명확한 목표 공유와 다각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는 인간 중심의 협업이 최우선 노하우 입니다.

Q. 앞으로 5~10년 후 AI는 우리의 연구와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특히 AI 분야에서 과학기술인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Dr 박지은 AI가 복잡한 연구 프로세스를 대체할수록 연구자의 역할은 기획과 소통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사회적 요구에 맞춰 핵심 연구 질문을 구체화하는 가장 앞단과, AI의 결과를 대중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뒷단에서 연구자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Dr 강점자 앞으로 AI는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파트너이자 일상의 개인 맞춤형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반면 연구자의 역할은 문제를 정의하고, AI 결과를 검증하며,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책임 있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미래에는 AI를 개발하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게 활용하도록 만드는 역량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Dr 김은경 앞으로 5~10년 후 AI는 연구와 일상 속에서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지능형 협업 도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연구 분야에서는 방대한 문헌과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이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인은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것을 넘어, AI가 제시한 결과가 과학적으로 타당 한지 검증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해석자이자 책임있는 의사 결정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Dr 신영숙 현재 AI분야의 핵심화두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능형 시스템 으로, 10년 뒤 연구와 일하는 방식을 크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주 3일 근무시대가 열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빠른 기술 발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이를 실행하려는 '연구자의 의지' 아닐까요? AI 에이전트라는 뛰어난 도구라도 무엇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주체는 인간 연구자이기 때문입니다.

Q.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입니다. 꼭 AI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연구 분야에 AI를 접목하여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하는 KWSE 회원들이 지금 당장 준비하거나 주목하면 좋을 기술적 변화나 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한, AI 시대를 준비하는 후배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Dr 박지은 AI 트렌드를 좇아 연구 주제를 바꾸기보다는, 고유의 문제 의식과 방향성을 유지하며 AI를 방법론적 도구로 접목해야 합니다. 해결 하려는 핵심 문제를 중심에 두고 기존에 다루지 못했던 데이터 분석이나 예측에 AI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Dr 강점자 AI를 반드시 전공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AI를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데이터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기본기, 그리고 AI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AI를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도구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미래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 입니다.

Dr 김은경 AI 활용의 시작은 어려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찾아보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중 문헌 조사, 데이터 정리, 보고서 작성 등 작은 업무부터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습관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 합니다. 후배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는 AI를 단순히 잘 사용하는 사람 보다, AI가 놓친 부분을 자신의 전문지식으로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연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Dr 신영숙 "AI는 새로운 전기"라는 말처럼 AI는 모든 분야의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아직 스위치만 누르면 될 만큼 완벽하진 않기에, 지금은 간단한 것부터 배워보는 '**'실천 의지'***가 필요합니다. 챗GPT, 제미니에 잘 질문하는 법이나 클로드로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작게 시작해 보세요. 그 의지가 실행으로 이어질 때 내 연구 분야를 확장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강력한 경쟁력이 피어날 것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변화!

☞ 최선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여성협의회 제4기 회장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원자력 안전과 미래 원자로, 방사선 활용기술 등 국가 핵심 원자력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국내 대표 연구 기관이다. KAERI 여성협의회는 2018년 출범하여 현재 정규직 여성 직원 28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5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연구원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더 나은 연구환경과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연구현장에서는 육아와 돌봄, 일·생활 균형과 같은 주제가 더 이상 여성만의 고민이 아니라 연구원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이 자연스러워지고 부모교육에도 아버지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협의회 역시 여성만이 아닌 연구원 구성원 모두를 위한 연구환경과 조직문화 조성으로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여성 보직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직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원장 및 노동조합과의 소통을 통해 실제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제4기 여성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던 구성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자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Single Researcher Salon(SRS)」이다. 그동안 여성협의회 활동이 부모와 육아 지원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면, SRS는 비혼의 삶을 살아가거나 준비하는 여성 연구자들이 선배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자의 삶과 경력, 자기계발, 노후 준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고, 그동안 충분히 살피지 못했던 구성원들과 새로운 소통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제4기의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가장 큰 변화는 '여성의 문제'가 '조직의 과제'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육아휴직과 부모 친화적 근무환경, 경력개발과 조직문화 개선은 이제 특정 구성원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연구환경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은 연구문화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

작은 대화는 때로 조직을 바꾸는 가장 큰 시작이 된다. 여성과학기술인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변화가 연구원 전체의 연구문화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연구환경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KAERI 여성협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서, 연구자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연구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연구문화

가장 높은 곳을 꿈꾸는 이들의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의 위로!

☞ 임석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여성협의회 제4기 회장

대한민국이 누리호와 다누리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의 중심에는 항우연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도약은 기술력을 넘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연구문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항공우주 분야는 대표적인 남성 중심 영역으로, 항우연의 여성 연구자 비율은 8.8%에 불과하다. 잦은 출장으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 환경과 낮은 여성 리더 비율 등은 여성 연구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기관장과 여성 직원들의 첫 공식 간담회가 열렸고, 이는 2019년 '항우연 여성협의회'의 공식 출범으로 이어졌다.

뒤늦게 출범한만큼 여성협의회는 단순한 여성 조직을 넘어 양성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연구환경을 만드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왔다. 현재 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한다.

연구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남성 연구자의 육아휴직 확대 등을 제안하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산시켰고,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대외적으로는 유엔 '우주와여성' 국제워크숍의 성공적인 개최를 주도하고, 한국항공우주학회 내 여성특별세션을 운영하여 여성위원회 발족을 추진하는 등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국제협력과 학술네트워크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동시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WISET 여대생 멘토링과 인턴십을 운영하며 차세대 여성연구자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의 날을 맞아 서로의 가치를 응원하는 '장미꽃 나눔' 행사가 큰 호응을 얻었고, 인근 기관의 여성협의회를 방문해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는 '내돈내산 점심투어' 같은 이색 프로그램은 회원들에게 신선한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 응원하고 공감하며,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심리적 안전망과 연대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이제 항우연 여성협의회는 유연함과 단단한 결속을 바탕으로 성별 제약없이 열정만으로 도전하는 환경을 만드는 구심점이 되고자 한다. 사람 중심의 포용적 문화와 연대의 힘을 통해 대한민국 항공우주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내돈내산 연구단지 투어



여성의날 꽃행사



2025정기총회



운영위원회 기념

나에게 도전이란

CHALLENGE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96호 소식지의 새로운 코너 'Challenge'를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도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연구와 일,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며 성장해 온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응원과 영감을 전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이 전하는 '나에게 도전이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도전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영 한국한의학연구원



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학원 시절 첫 제자로,
첫 직장인 연구소의
초창기 멤버로 전통의학 연구의
새 길을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해보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오투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끈기함이 저를 지탱하는 힘,
그것이 저의 도전입니다.

조지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한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다양한 상황을 겪으며 부족하고
미성숙한 부분을 하나씩 발견하고,
이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
어제보다 더 성숙하고
멋진 나로 발전해
가는 것이
나에게는
진정한
도전이다.



임경아 국방과학연구소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한 사항은
뒤돌아보지 않고
아흔아홉 가지 안되는 이유는 잊고
한 가지 되는 이유를 놓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추진해 나가는 것.
혼자가 아닌 더불어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내는 자제력과 유연함,
포용력을
키워나가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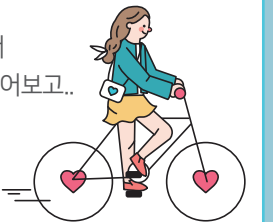
박지은 온리마음

와인 잔 대신 투박한 청하 잔을 부딪치고,
'엄마'라는 책임감 대신
외박 가방을 싸는 일.
처음의 낯선 불안은 어느 순간 '이래도 되나'
삶을 정도의 짜릿한 자유로 다가온다.
내 삶의 규칙과 책임을 기분 좋게 배신하는 일탈,
그게 나의 가장 짜릿한 도전.



정명숙 국방과학연구소

변화하는 시대상을 따라가기엔 늦었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기...
그래서 영어공부도 연구소에 신청해서
한번 해보고, 파이썬 온라인 교육도 들어보고..
반백살에도 포기하지 않고 늘어진
마음가짐을 다잡아 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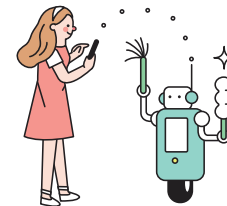
김보애 목원대학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원동력이랄까.
요즘 나에게 도전이란 몸을 쓰는 것이다.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몸은
굳어져 간다. 하지만 다양한 운동과 취미생활을 통해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의 감각을 느끼게 되면
무엇이든 또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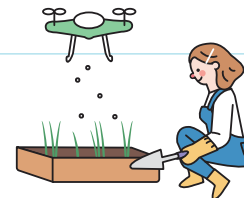
신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익숙한 길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일이다.
천문에서 위성으로,
이제는 AI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연결하는 연구에 도전하고 싶다.
그 작은 도전이 언젠가
더 큰 변화를 만들 것이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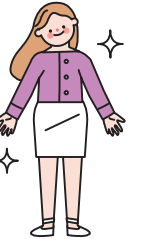
배수빈 국방과학연구소

항상 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이 무엇이 되든간에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지는 것.
시도조차 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으며, 가꾸고 훈련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오기
때문에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한다.



장윤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완벽이란 기준은 없음을 알면서도 용기 내어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다.
해내고자 할수록 망설임과 아쉬움도 커지지만,
머무르지 않고 다시 나아가는 것.
실패와 후회까지도 경험이라 수용하며
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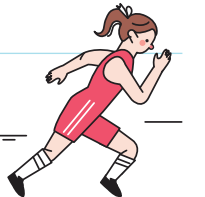
최선미 한국한의학연구원

그동안은 동료 전문가의 도움으로 만든
PPT에 의존해 발표했다. 혼자서는 만들
자신이 없어 강의를 사양하곤 했지만,
시가 내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2개월간 '내 안의 물고기'
북콘서트를 준비하며 ChatGPT와 미리캔버스로 나만의 발표를
완성했다. 세바시처럼 청중과 소통한 20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나를 칭찬한다.



김슬아 국방과학연구소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지치고
지루할 때 새로운 걸 도전하고 있어요.
독서회 참가, 러닝하기,
혼자 번개 여행떠나기 등.
완벽하게 준비하여 시작하기보단 일단 시도하며
실수도 즐기고 있어요.
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여정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라

이화여자대학교 이향숙 총장,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리더십의 조건

📍 이향숙 이화여자대학교 제18대 총장

이화의 140년, 새로운 총장이 그리는 미래

1886년, 단 한 명의 학생으로 문을 연 이화여자대학교는 지난 140년간 여성 교육의 불모지를 개척하며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최초'와 '최고'를 함께 써왔다. 2025년 2월, 이화는 138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공계 출신 총장을 맞았다. 암호학을 전공한 수학자이자 대한수학회 70년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을 지낸 이향숙 총장이다.

취임 1년 반, 이향숙 총장은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이화'라는 비전 아래 AI 교육 혁신, 연구 경쟁력 강화, 사회적 책임 확장이라는 세 축을 밀어붙여 왔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임채덕 회장이 총장실을 찾아, 그 변화와 철학, 그리고 다음 세대 여성 리더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었다.

Q. 올해 창립 140주년을 맞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이끄는 첫 이공계 출신 총장이십니다. 그 상징성이 대학 현장과 과학기술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니다. 취임 이후 '이화의 DNA'에 어떤 변화를 가장 먼저 시도하고 싶으셨는지요?

과학기술계 출신 첫 총장으로서 제가 가장 먼저 시도한 변화는, 전통적 가치는 지키면서도 대전환 시대에 맞는 '미래형 대학 체질'로 이화의 DNA를 전환하는 일이었습니다. 취임 후 지난 1년 6개월간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이화'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와 20대 중점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왔습니다. 특히 대학 운영의 중심을 연구 중심대학으로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두고, 정책·제도 정비와 연구·교육 혁신을 함께 추진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래전략실'과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의 신설입니다. 미래전략실은 연구·교육·재정·국제화 정책을 통합 설계하는 전략 컨트롤타워이고,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은 '나눔과 섬김'이라는 건학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확장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구조화한 조직입니다.

연구 분야에서는 '멀티스케일 물질 및 시스템 연구소'의 국가연구소(NRL 2.0) 사업,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원'의 G-LAMP·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 선정을 통해 대형 융합 연구를 수행할 체계와 중장기 재정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기후환경융합연구원 등 전략적 융합 연구 거점도 신설하며 미래 전략 분야 중심으로 연구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AI 4 All Ewha'를 중심으로 전 학문 분야에 AI 교육을 확산하고, 2026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인문·자연·예체능을 아우르는 AI 융합 교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중앙일보 대학평가 6위, QS·THE 순위 상승 등 평판이 개선됐고, 대규모 기부금 약정을 확보해 미래 투자 기반도 넓혔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별 성과가 아니라, 연구·교육·재정·브랜드를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해 이화의 체질을 글로벌 경쟁 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이 기반 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는 구조적 변화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Q. AI가 연구와 교육의 패러다임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AI 4 All Ewha(AI4AE)'를 강조하시며 기술 문해력을 높이는 교육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이화가 추구하는 '이화형 미래교육'은 무엇이며, 여성과학기술인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취임 이후 'AI 시대를 대비하는 고등교육 대전환'을 교육부문의 핵심 전략목표로 삼아, 미래형 AI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를 구축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비전에 따라 AI4AE를 중심으로 전 학문 분야에 AI 교육을 확산하고, 2026학년도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인문·과학·예체능을 아우르는 AI 융합 교육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정 전공에 한정되지 않은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교육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AI4AE는 모든 학생이 기본적인 AI 소양과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전공 교과과정 개편과 AI 마이크로전공 신설, 자기설계 모듈형 AI 교양 교과목 개발, 비교과 프로그램과 AI 인증제 운영, 교수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 교육에서는 '맞춤형 AI 교육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13개 단과대학·36개 전공이 참여해 총 55개 교과목을 개편·신규 개발했고, 여러 학과에 AI 관련 마이크로전공도 신설했습니다. 교양 교육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강좌를 설계해 수강하는 자기설계 모듈에 AI 모듈 강좌 17개를 추가 개설했고, AI4AE 홍보 서포터즈, 명사 특강, 학생 공모전 등 비교과 프로그램과 AI 교육 인증제 도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수 지원 역시 AI 활용 에듀테크 워크숍,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 AI 튜터 운영, 'AI in Edu Awards' 시상 등으로 교육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술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화는 AI 전문 인재 양성, 모든 학생을 위한 AI 기초소양(AI Literacy), 전공과 AI를 결합한 융합 교육, AI 시대에 맞는 교수법·평가체계 개편, 그리고 윤리와 책임성, 비판적 사고를 갖춘 인간 중심 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총장님께서 강조하시는 '포용적 혁신으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이화'를 비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단순한 다양성을 넘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대학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용적 혁신'은 단순히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지켜야 할 본질적 가치는 지키면서 시대 변화에 맞게 교육과 연구, 제도와 문화를 새롭게 하고, 서로 다른 배경과 전공,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포용적 혁신입니다.

AI와 기술이 사회 전반을 빠르게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에는 하나의 학문이나 단일한 시각만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예술이 서로 연결될 때 새로운 지식과 해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뿐 아니라 '그 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함께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는 AI를 특정 전공자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이화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AI를 잘 쓰는 인재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가치와 책임 있는 판단으로 AI를 활용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인재입니다. 연구에서는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합과 협력을 강화 하며,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AI·첨단과학기술·기후

환경 등 복합적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도와 조직에서도 미래전략실과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을 통해 대학이 가진 지식과 인재, 연구역량, 인프라를 사회와 나누는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저는 대학의 지식과 혁신이 대학 안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삶에 기여할 때 비로소 혁신의 가치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포용적 혁신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양성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 더 큰 가능성과 새로운 가치로 이어지는 혁신입니다. 이화는 기술이 사람을 앞서가는 대학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며 그 혜택을 사회와 함께 나누는 대학으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Q. 이화를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총장님께서 정의하시는 사회적 자산이란 무엇이며, 대학과 과학기술인이 우리 사회에 남겨야 할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는 대학이 학생을 교육하고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을 넘어, 사회가 신뢰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사회적 자산이란, 대학이 축적해 온 지식과 연구역량, 인프라, 인재와 네트워크를 사회와 폭넓게 나누고 연결 하여 국가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동의 자산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화의 140년 역사를 돌아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이화는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에게 배움의 문을 열었고, 최초의 여의사 김점동, 최초의 여성 미국 학사 하란사를 비롯해 학계·법조계·언론계·정관계 등 각 분야를 개척한 수많은 여성 리더를 배출하며 '최초'와 '최고'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화가 만들어진 '최초'의 진정한 의미는 기록 그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게 열린 기회가 수많은 여성의 가능성을 열었고, 그들이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이끌며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화의 교육과 지식이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힘이 되어온 것, 저는 이것이 대학이 사회적 자산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학의 역할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자산의 규모와 사회적 책임의 범위는 훨씬 커졌습니다. 대학에서 창출된 지식과 과학기술은 논문이나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 하며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AI와 첨단과학기술이 사회를 빠르게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에는 과학기술인의 책임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개발



할 수 있는가'를 넘어 '왜 개발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물어야 하며, 그 과정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 있는 가치 판단, 윤리가 반드시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학과 과학기술인이 사회에 남겨야 할 궁극적 가치는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그 가능성을 키우며, 더 나은 삶과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대학과 과학기술이 지향해야 할 목적입니다. 140년 전 한 사람에게 배움의 문을 열었던 이화의 교육이 우리 사회를 변화 시키는 힘으로 이어졌듯이, 앞으로도 이화는 교육과 연구의 성과를 사회와 나누며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이화라는 조직 안의 모든 구성원이 자기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Q.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의 핵심 가치인 '참여, 연결, 지속가능성'은 총장님의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학계와 KWSE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와 구체적인 협력 방향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KWSE가 지향하는 '참여, 연결, 지속가능성'은 오늘날 대학이 추구 해야 할 방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대학과 여성과학기술인 공동체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지식과 경험, 가치가 순환하는 '공동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 측면에서, 대학은 더 많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와 교육, 정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 단계부터 연구자, 산업계 전문가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참여 구조를 만들고, 특히 젊은 여성 인재들이 롤모델을 가까이에서 경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결'은 그 자체로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학문 간, 세대 간, 학계와 산업계·정책 영역을 잇는 네트워크를 KWSE와 대학이 함께 구축 한다면,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이 개별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공동 연구, 멘토링 프로그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구체적인 협력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은 단순한 인력 유지가 아니라,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서 성장하고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지원, 리더십 교육, 연구 생태계 내 공정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더 큰 꿈을 향해
용기 있게 도전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다음 세대에게 더 넓게 열어주는.”
리더가 되십시오.”

대학이 이 기반을 설계하고 KWSE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파트너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학계와 KWSE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특정 집단의 성장을
넘어 과학기술이 더 다양하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발전하는 사회
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여대를 비롯한 대학은 KWSE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이 사회적 가치로 확장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총장님의 뒤를 이어 세상을 바꿀
미래 여성 리더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가치 한 문장을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더 큰 꿈을 향해 용기 있게 도전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다음 세대에게 더 넓게 열어
주는 리더가 되십시오.”

이 문장에는 제가 미래 여성 리더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세 가지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힘입니다. 때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한계보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입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 그랬습니다. 대한수학회 70년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 됐을
때도, 정작 제가 '최초'라는 사실은 기자분의 질문을 받고서야 깨달
았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성이라는 사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물음과 더 많이 씨름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은 모든 도전의 출발점이며, 높은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하고 개척하는 용기입니다. 대전환의
시대에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익숙함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 도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
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가 미래 리더에게 필요합니다.

셋째,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넓혀주는 책임과 연대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성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여성과학기술인 선배들이 먼저 길을 닦아주신
덕분입니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길 위에서 제가 성장했다는 것을
젊었을 때 깨달았고, 저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 그 길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개척한 길을 다음 세대가
더 쉽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넓혀줄 때, 한 사람의 성취는 더
많은 사람의 가능성을 열고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도전이 또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열고, 그렇게
이어진 변화가 우리 사회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보금자리를 함께 세웁시다!



여성과학기술인 회관 건립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는 2023년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지난 30년의 성장을 발판 삼아 향후 30년의 지속 가능한
도약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회관은 세대와 분야를 잇는 교류의 장이자,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우리 모두의 공동 터전이 될 곳입니다.
이 뜻깊은 여정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학기술인 회관 왜 필요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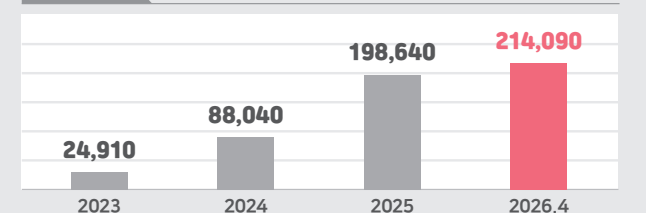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서로 연결되고 성장하는 거점이자 국내외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과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이 함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활동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우리나라 과학기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힘입니다.
KWSE가 만드는 여성과학기술인회관은 그 힘을 키워가는 ‘지속가능한 집’이 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 및 모금현황

추진현황

- 2023. 03. 여성과학기술인회관 모금캠페인 시작
- 2024. 03. 제15대 회관건립추진위원회 발족
- 2024. 12. 제32회 정기총회 추진현황 보고
- 2025. 04. 92호 소식지 여성과학기술인회관 건립 프로젝트 소개
- 2026. 01. 제16대 회관건립추진위원회 발족 및 운영

모금현황



모금 캠페인

01 모두가 참여하는 기부
1-1-1(하나의 힘) : 1인 - 매월 1만원 - 1년 기부

02 **KWSE 파트너즈** :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

플래티늄	2,000만원 이상
다이아몬드	1,000만원 이상
골드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실버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브론즈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기부방법



QR코드 스캔 ● 약정서 작성 ● 기부금 납부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기부자 혜택

- 기부금 영수증 발급(세제 혜택)
- 여성과학기술인회관 명예의 전당에 성명 기재 등

문의처 :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사무국(042-863-8310/kwse@kwse.or.kr)

과학외교: KWSE인 세계속으로

CKC, KWSE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여성과학기술인의 확장된 역할

2 조성희 한국화학연구원

한·캐나다 학술대회(Canada-Korea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KC)는 한국과 캐나다 과학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국제 교류의 장입니다. 이번 CKC 2026에 직접 참여하며 연구 성과를 나누는 학술행사를 넘어 국내외 과학기술자와 산업계, 정책 관계자, 차세대 연구자들이 만나 새로운 협력을 만들어 가는 자리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 세션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AI, 우주과학, 글로벌 안보, 데이터 보안, 로봇 및 첨단제조 등 미래 핵심 과학기술 의제를 함께 논의하며, 여성과학기술인이 미래 전략기술과 글로벌 이슈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 연구자이자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연구와 경험을 공유하는 모습을 통해 다양성과 전문성,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CKC를 통해 국제협력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깊이 느꼈습니다. 세션과 간담회, 만찬 등에서 캐나다 한인 과학기술자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공동 세션, 차세대 멘토링, 연구자 교류 등 후속 협력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경험은 KWSE의 국제네트워크가 회원 간 교류를 넘어 국가 간 연구자 연결, 국제 공동연구, 차세대 리더십 육성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국제여성과학기술인 교류지원 플랫폼(WWST)이 글로벌 여성과학기술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CKC 2026에서 만들어진 인연과 논의가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져 KWSE가 한국과 세계 여성과학기술인을 잇는 든든한 가교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UKC, 서로의 성장을 이끄는 네트워크 현장

2 황은숙 이화여자대학교

몇 번 들은 적은 있지만 선뜻 가볼 생각은 못 했던 UKC를 임채덕 회장님의 권유로 참석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보낸 며칠은 깊은 존경과 공감으로 채워졌습니다. 과총(KOFST)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가 공동 주최한 UKC 2026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윌리엄 필립스 박사와 엔비디아 공동창업자 크리스 말라초스키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어, AI 시대 교육·연구 혁신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짚었습니다.

과학기술계를 이끄는 리더들의 모습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권오남 과총 회장님, 윤혜은 WISET 이사장님, 강선미 여과총 회장님, 김현정 과총 부회장님,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님 등 여성 과학 리더들의 당당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비이공계 출신임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와 협업을 실천하는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님을 보며 과학의 경계를 넓히는 가치를 실감했습니다.

재미한인여성과학자협회(KWiSE)와 함께한 세션은 공감 그 자체였습니다. 여성이자 엄마, 딸이자 과학자로 미국 사회에 뿌리내린 여정의 무게를 함께 느꼈습니다. 알츠하이머 연구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아픔까지 보듬는 발표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의 포용력과 공감 능력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의 젊은 후배들을 보며 글로벌 연구 협력과 차세대 멘토링을 위한 KWSE의 역할과 책임도 깊이 느꼈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이끄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KC, 한국과 유럽을 과학기술로 잇다

2 김남정 농촌진흥청

KWSE 소속으로 이번 2026 한·유럽 학술대회(EKC 2026)에 참석하여 유럽 내 한인 과학자분들과 깊이 교류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회장에서 만난 한인 과학기술자분들의 열정과 자부심은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유럽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당당히 입지를 다지고, 한·유럽 협력의 핵심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대단히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 빈 박정해 교수님(IMT Nord Europe)은 1,000만 유로 규모의 대형 연구프로젝트인 'ECOHYDRO'의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7개국 16개 기관을 유기적으로 이끄는 독보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EKC 2026에서 농촌진흥청은 농업 분야 최초이자 정부 기관으로서 유일한 스폰서로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EKC 내에 별도의 농업 분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관한 농업 특별세션이 현지 연구자들과 학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는 것을 보며 우리 농업기술의 경쟁력과 유럽 내 높은 수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첨단 그린바이오 성과를 발표하고, 유럽 연구진과 실질적인 협력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타 산업의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WSE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이처럼 뜻깊은 국제 교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과 이러한 성과 및 경험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다음 EKC 무대에서도 더 많은 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주 골목서가 오래된 질문

과학과 철학, 그리고 잠시 머무는 씬

📷 김 양 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공주 구도심을 흐르는 제민천을 건다 보면 나태주 시인의 골목길로 이어집니다. 오래된 집과 낮은 담장 위로 능소화가 피어난 호젓한 골목에서 마음이 먼저 머무는 철학 북카페 '오래된 질문'을 만납니다.

오래된 가옥에는 시간이 쌓이고, 오래된 책에는 누군가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 품어온 질문도 그렇습니다. 쉽게 답을 찾지 못해 마음 속을 맴돌다가 어느 날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지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빨리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대문 안으로 들어서 붉은 벽돌 사이로 난 미로를 돌아야 비로소 책이 있는 공간에 닿습니다. 진리와 지식에 이르는 길이 언제나 곧고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의미가 담긴 길이라고 합니다. 연구도 때로는 미로를 헤매는 일과 닮았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되돌아가기도 하고, 한참을 헤맨 끝에 뜻밖의 질문을 만나기도 합니다. 미로를 지나면 오래된 한옥의 서까래와 보가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때 잡초가 무성했던 빈집이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겹고 편안합니다.

책방지기 지명훈 대표에게 이 골목은 어린 시절의 좋은 기억이 머무는 곳입니다. 부모님이 이 동네에서 하숙집을 운영했던 추억을 간직해 온 그는 오래된 한옥을 매입해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위한 공간으로 되살렸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을 생각도 했지만, 건축가의 한마디가 마음을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건축물에서 최고의 소재는 시간이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는 오래된 것이 낡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집이 시간을 품어 깊어지듯, 사람의 기억과 질문도 오랜 시간 묵으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듯합니다.

AI 시대,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

공주 골목서가 '오래된 질문'에는 철학책들이 빼곡합니다. 철학을 어렵게만 느껴 젊은 시절 만화로 읽기도 했던 저는 그곳에서 한 그림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테네 로봇 학당(The Robot School of Athens)」입니다.

KAIST의 의뢰로 화가 도미니크 물렘이 2023년에 그린 작품으로, 이곳에 걸린 그림은 KAIST에서 기증받았다고 합니다. 원작에서 플라톤이 서 있던 자리에는 AI 로봇이 등장합니다. 고대 철학과 21세기 인공지능이 한 공간에서 만난 셈이지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인간다움의 의미와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의 맨 앞에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동양 여성이 서 있습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여성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철학자들과 미래의 로봇 사이에서 있는 한 여성. 그 모습이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지식과 학문의 역사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여성의 모습이 그곳에서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과학과 철학은 어쩌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둘 다 당연하게 여겨온 것에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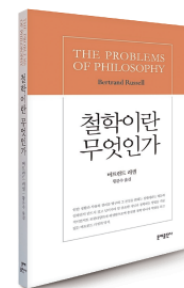


잠시 멈추면, 더 좋은 질문을 만날 수 있을까?

과학기술인은 끊임없이 답을 찾아갑니다.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때로는 예상과 다른 결과 앞에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래된 질문'에 앉아 철학책을 바라보는 시간이 참 편안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된 서까래 아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마음 가는 책 한 권을 펼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고민도 잠시

내려놓아 봅니다. 심은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이 새로운 길을 찾도록 여백을 내어주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오래된 답'이 아니라 '오래된 질문'이니까요. 그곳을 나서며 모든 답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몇 가지 새로운 질문을 더 품고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철학책 사이를 거닐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동안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으니까요. 혹시 풀리지 않는 문제로 생각이 복잡한 날이라면, 어느 날 공주의 '오래된 질문'으로 가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연구와 일, 일상의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 해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앞에서 오래된 질문과 마주하다 보면, 우리가 그토록 찾던 답 대신 더 좋은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과학도 그런 질문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아닐까요?

묵힌다는 것은, 그래서 진한 감동이 있나 봅니다.



KWSE 회원에게 '오래된 질문' 책방지기의 추천 도서

철학이란 무엇인가 (The Problems of Philosophy)

저자 버트런드 러셀

이 책이 건네는 질문 회의론자 러셀은 '절대적 진리가 무엇인지'보다 '어떻게 하면 독단에 빠지지 않을지'에 집중합니다. 과학이 신뢰하는 관찰, 데이터, 수학적 모델, 귀납법이 단지 '현재로서 기댈 만한 확률적 유용성'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전라제주 지부

전라제주권 호남지부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킹 행사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AI 시대 사람 중심의 소통강화”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전라 제주권 호남지부장인 광주과학기술원 유난이 박사의 개회사와 KWSE 회원 활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수남 박사의 축사로 시작했다.

첫 번째 연사로 광주여자대학교 임귀자 교수가 “AI 시대의 여성 리더쉽 : 가족과 돌봄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유아교육과 건축 공학이라는 특별한 서로 다른 전공을 동시에 하고, 산업체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세 자녀를 키우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힘들었던 시기에 대한 경험을 진솔하게 공유해 주어 청중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했다.

두 번째 연사로 전북대학교 김정자 교수가 “발 위로 내려온 피지컬 AI”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교수는 고령화되고 육체노동 중심의 영농활동을 보조하고 사람의 근육과 힘의 쇠약을 보조하거나 대체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의 영농상황에 맞는 맞춤형 연구개발과 더불어 현재 제주도 등지의 감귤농장에서 필드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도 소개하여 한층 더 현장감 있는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영농 모습을 소개했다.

행사 전에 미리 모여서 참석한 회원들과 신규 회원들이 점심 도시락을 함께하며 자기소개와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발표를 마치고 다양한 곤충들의 체본과 활용 및 먹거리로 발전된 사례들 소개 및 농업 미생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종자들의 균류들 소개를 통해 한층 더 국립농업과학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서로 공동연구 가능성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울산 경남지부

‘경험을 나누고 길을 연결하는 네트워킹’을 주제로 개최된 ‘2026 부산·울산·경남지역 여성과학기술인 융합워크숍’은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풍부한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선배 연구자와 열정적인 신진 연구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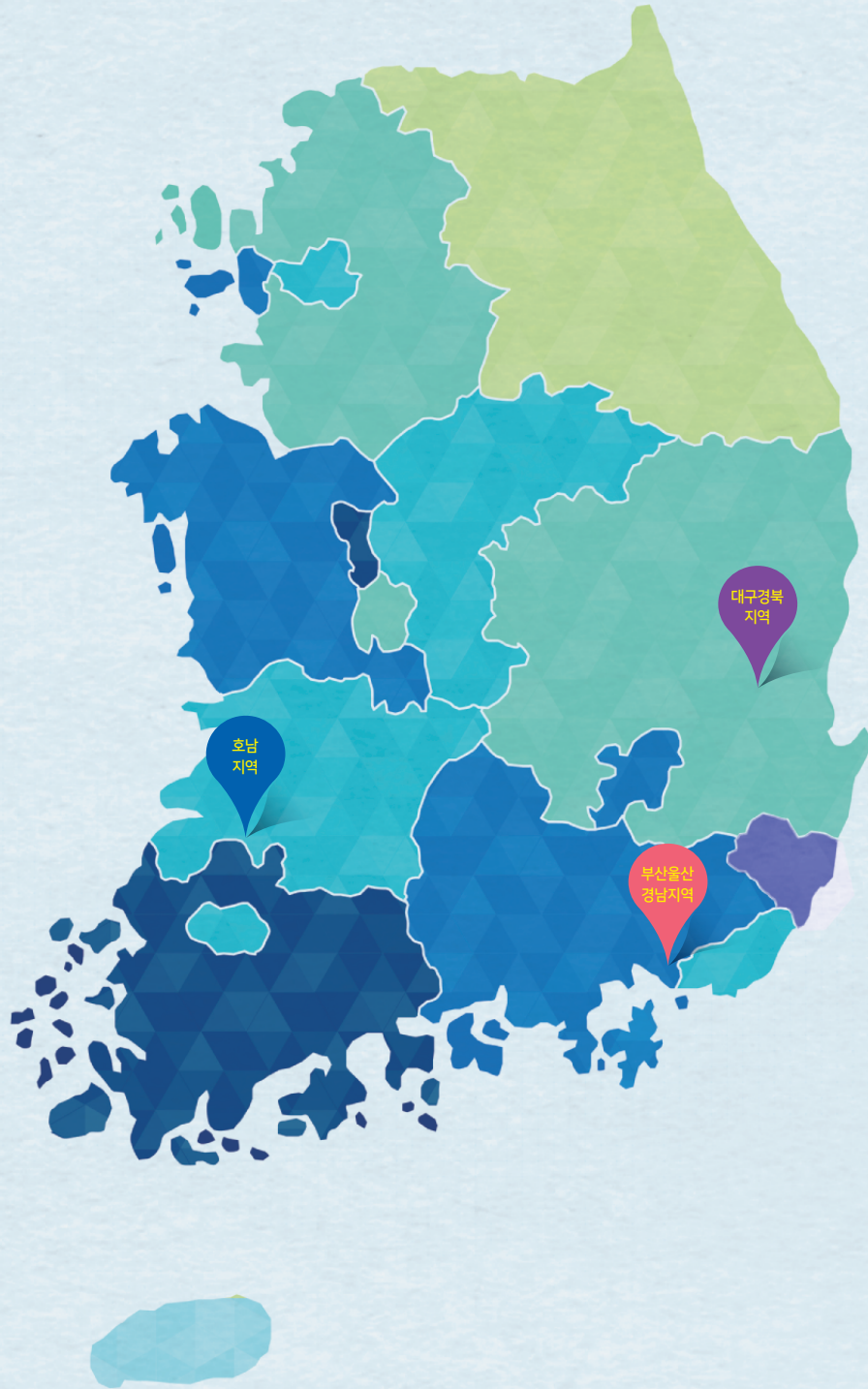
첫 번째 발표는 원미숙 박사가 「여성과학자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축복, Scientist Again」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과 성장을 대변해 온 KWSE의 역사적인 성장 과정과 주요활동을 되짚어보고, 일과 가정의 균형, 연구자로서의 정체성 고민 등 후배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민들에 대해 진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후배 연구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연구 수명과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여 참여자의 뜨거운 공감과 박수갈채를 받았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김정선 교수가 「과학은 사람으로 이어진다: 연결이 만든 여정」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풍부한 국내외 연구 활동 경험과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사례를 바탕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이 갖추어야 할 4대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과 네트워킹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연구와 진로, 지역사회 협력,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기관 간 교류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KWSE 지부 소식

여성과학기술인 융합워크숍



이번 융합워크숍 및 간담회는 지역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연구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세대와 기관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과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과학기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구경북 지부

대구경북지역 여성과학기술인 융합워크숍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 지역의 여성 과학기술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석했으며, 전문가 강연을 통해 최신 연구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 분야를 넘어 소통과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연사인 유소현 박사(부산대학교)는 「From Brain Signals to Brain Models」를 주제로 기능적 근적외선분광법(fNIRS)을 활용한 뇌신호 측정 기술과 데이터 분석 방법 소개와 인공지능 기반 뇌신호 모델링 및 가상 뇌 모델 구축 연구를 설명하였다.

두 번째 연사인 한상선 박사(한국뇌연구원)는 「마리 쿼리를 통해 본 의료기술의 발전: 리를 쿼리에서 첨단 의료기기까지」를 주제로 의료기술 발전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였다.

세 번째 연사인 최태영 부장(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나와 일과 가정」을 주제로 진로 선택과 경력개발 과정에서 연구자로서의 성장과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속 가능한 연구활동과 조직 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네 번째 연사인 김희경 박사(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보이지 않는 질병을 영상화하다: 생체영상 연구와 여성과학자의 재도약」을 주제로 표적 MRI 조영제 개발 및 생체영상 기술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원경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는 「천연물 기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천연물 기반 후보물질의 항바이러스 효능과 작용기전, 신약 개발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는 참석자와 연자 간 활발한 질의응답과 간담회가 이어졌으며, 연구 현장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최신 기술 동향, 공동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대구·경북지부 융합 워크숍은 여성과학기술인과 지역 연구자들이 연구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 분야 간 융합과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한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바이브 코딩, 연구 현장 적용으로 성과 확대 이뤄지길

김영준 전자신문 기자

얼마 전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열린 한 간담회 현장. 이곳에서 들은 한 대학 관계자의 증언이 꽤 인상적이었다.

AI 모델 개발, 코딩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로 수년간 관련 학과에 진학이 쇠퇴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해당 학과 취업률이 바닥을 쳤다는 얘기였다.

코로나 시기 이후로 코딩을 할 수 없으면 취업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온 대학을 뒤덮었고 학생들도 안달이었는데,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열기에 찬물이 끼여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 대학 취업률 공시에 따르면 2023년 83.8%던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취업률은 지난해 72.6%로 떨어졌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취업률도 같은 기간 77.9%에서 69.8%로 하락했다. 최상위 대학이 그런데, 다른 대학들은 말할 것도 없다. 대부분 대학의 관련 전공 취업률이 2년 사이 약 10%포인트(p), 혹은 그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변화 시점 중간인 2024년은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시기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사람 대신 AI가 코딩해주는 새로운 방법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 영향으로 코딩을 하는, '개발자'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취업률도 함께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업 당사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AI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화를 맞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다. 그리고 사람 대신 AI가 코딩해주는 '바이브 코딩' 방법론이 얼마나 빨리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시점은 지난해 2월. 오픈AI 창업 멤버이자, 테슬라에서도 활약했던 AI 연구자 안드레 카파시가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세상에 내놓은 개념이다. 바이브 코딩은 생성형 AI 보급에 힘입어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그동안의 소양을 갖춘 이들만 쓸 수 있던 프로그래밍 언어 대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평범한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다. 바로 생성형 AI에 지시를 내리는 방식을 통해서다. '바이브(Vibe)'란 단어에 담긴 것처럼, 느낌을 따른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물론 아직 비효율적이거나, 취약점을 가진 코드가 생성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어느 정도 코딩 지식이 있을 때 도출되는 수준이 높아진다는 한계가 아직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끝내는 전통적인 방식의 코딩과 바이브 코딩의 비교가 점점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개발 속도를 크게 단축할 수 있고, 아예 코딩에 대한 문외한도 시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게 대체할 수 없는 장점이다. 당장 지금에도 코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 친구, 직장 동료들이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 새로운 AI 툴(도구)들을 만드는 시대가 열렸다.

돌이켜 보면 이런 현상은 과거 인터넷이 막 보편화되던 1996년, '인터넷 정보검색사' 자격증이 유행했으나 현재는 사라진 것과 유사한 양상이지 싶다. 해당 자격증은 인터넷 정보 검색 분야에 특화된 자격인데, 10년 만인 2006년 인터넷 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됐고, 2022년에 폐지됐다. 인터넷 정보 검색이 너무나도 일상화된 나머지 굳이 국가 공인으로 자격을 물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 폐지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재로는 과한 추측일 수도 있으나, 훗날에는 인터넷 정보검색사처럼 기계어 코딩에 기반한 개발자는 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바이브 코딩은 연구 현장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례로 지난 4월 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전기관 'AI 전환(AIX)'을 선언했다. 사실 어떤 기관이 AIX 전환을 표방하는 것은 그리 새로운 것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 KIST의 이번 시도가 차별화되는 점은 그 핵심 중점 내용 중 하나로 바이브 코딩을 꼽았다는 것이다.

기관 내 대다수가 직접 바이브 코딩을 활용해 AI 툴을 제작·활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KIST는 이로써 기관 전체의 성과를 고도화,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이제현 KIST AIX 전략실장은 필자에게 “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어야 조직에 보다 큰 동력이 생기며, 이는 AI에서 특히 그렇다”며 “KIST의 누구나 바이브 코딩을 통해 AI 개발자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시도가 KIST에서만 가능하고, 의의를 가질리는 없다. 출연연, 대학 연구실, 기업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모든 연구 현장에서 바이브 코딩을 활용한 연구 고도화가 이뤄지면 어떨까. 바이브 코딩으로 직접 연구에 필요로 하는 도구를 만들고 활용해, 우리 연구계가 세계에서 보다 높은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KWSE

NEWS

2026 KWSE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국회 포럼

AI 시대,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경험의 국가 자산화와 활용 전략을 주제로 '2026 KWSE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국회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국가와 사회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제는 안부영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고경력여성과학기술인활동센터장과 정연정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업기술위원장이 맡았다. 안부영 센터장은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중심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방안'을 주제로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의 전문성과 활동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방향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력개발 및 활용 지원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정연정 위원장은 산업계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활용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력이음 체계 구축과 전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송미영 (썬티제이폴텍 부사장이 좌장을 맡고, 원미숙 동의대학교 부소장, 장은숙 스마트융합연구소 소장, 한선화 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한형주 전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이 축적해 온 전문성과 경험을 국가의 핵심 지식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KWSE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국회 포럼



패널토론

첨단 바이오분야 학술행사 개최

2026 첨단바이오 분야 학술행사인 '2026 감각 악리·영양 심포지엄'이 7월 6일(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관에서 연구자 1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각과 후각 수용체의 기능을 감각 인지를 넘어 생리조절, 인지, 영양, 면역·대사 및 질환 발생과 연계하여 폭넓게 논의하고, 감각과학, 식품생명공학, 영양학, 생명과학, 약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융합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학술행사는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세션 1에서는 맛과 냄새를 감지하는 감각 수용체의 생물학적 원리와 개인별 감각 차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소개되었으며, 세션 2에서는 감각수용체와 대사 신호가 질환의 발생과 조절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질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다루었다.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분야 연구자 간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했으며, 심포지엄에서 소개된 연구는 국가신약개발사업 및 산학협력 과제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와 국제협력 확대는 물론, 바이오헬스 분야 융합연구와 신약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바이오분야 학술행사

한국-캐나다 학술대회 (CKC2026) 참석 및 KWSE-AKCSE 학술세션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휘슬러에서 개최된 한국-캐나다 학술대회(CKC 2026)는 'AI-Arctic Synergy for Global Impact: AI, Quantum, Aerospace, Energy, Marine, Biotech, Arctic'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회는 대회 기간 중 양국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속 가능한 교류와 학술성과 공유를 위한 핵심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6월 23일에 개최된 '재캐나다 한인 여성과학기술인 간담회'에서는 임채덕 회장, 곽영실 부회장, 조성희 이사가 참석하여 양국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과 공동연구, 차세대 연구자 교류, 멘토링 등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으며 지속적인 연대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어 24일에는 본회가 AKCSE 여성위원회(WiSE)와 공동으로 주최한 'WiSE2-KWSE 여성과학기술인 학술세션'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AI와 신형 글로벌 안보 도전 과제'를 주제로 AI 안전성, 우주안보, 헬리오물리학, 데이터 보안, 로봇·메카트로닉스, 첨단제조 등 다변화된 미래 기술 분야를 아우르며 AI와 첨단기술의 신뢰성 확보 및 활용 전략을 공유하였다.

이번 간담회와 학술세션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가진 전문성과 글로벌 리더십이 국제 공동연구와 국경을 넘는 협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한캐나다 여성과학자 간담회



KWSE-AKCSE 학술세션

한국-미국 학술대회(UKC2026) 참석 및 KWSE-KWiSE 학술세션

8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개최된 제39회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26)에 참가하여 한·미 여성과학자 간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8월 6일에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 마련한 Networking Lunch에 한국과 미국의 여성과학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연구주제와 최근 연구동향, 관심 분야를 소개하고 서로 다른 연구환경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연구와 학술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8월 7일에는 KWSE와 재미한인여성과학자협회(KWiSE)가 함께하는 KWISE-KWSE Forum이 'LIFESPAN: Predict, Protect, Personalize, and Regenerate'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신민경 박사는 대규모 모자보건 데이터를 활용해 임신·출산 및 사산의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역학적 접근을 소개했으며, 황은숙 교수는 성체줄기세포의 분화와 세포 운명 조절기전을 기반으로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유도하는 재생의학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보영 교수는 암·만성 질환 역학을 바탕으로 인구집단별 건강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정책과 연결하는 건강형평성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은 박사는 코호트·라이프로그 데이터와 AI, 전통의학을 융합해 개인의 질병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정밀 건강관리 연구를 소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미 여성과학자 간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학술교류와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UKC 2026 참석 및 KWSE-KWiSE 학술세션

KWSE

NEWS

한국-유럽 과학기술대회 (EKC2026) 참석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임채덕 회장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툴루즈 Centre des Congrès Pierre Baudis에서 개최된 2026 한국-유럽 학술대회(Korea-Europe Conference 2026, KEC 2026)에 참가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AI-Driven Fu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를 주제로 개최되어,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의 미래와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임채덕 회장은 Electrical/Electronics Engineering & Information Engineering 7 세션에서 'Trustworthy AI for Air Mobility Systems: Safety, Governance, and Public Trust'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유럽 과학기술인들과의 학술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7월 21일에는 EKWSEA 조형실 박사의 주선으로 재유럽 한인 여성 과학기술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유럽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및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학술 교류와 국제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KC 2027에서는 EKWSEA-KWSE 공동 세션을 개최하여 재유럽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의 교류와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럽에서 학위 취득 후 한국에 진출한 여성과학기술인과 유럽에 정착한 여성과학기술인을 초청해 양방향 진출 경험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연사와 재유럽 여성과학기술인이 멘토로 참여하는 멘토링을 통해 진로·경력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유럽 과학기술대회(EKC 2026) 참석

제20차 세계여성과학기술인대회 (ICWES20) 참석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필리핀 클락에서 열린 제20회 세계 여성과학기술인대회(ICWES20)에 참가하여 국제 여성과학기술인과의 교류를 확대 하고 KWSE의 활동을 알렸다. 이번 대회는 'Global Women in STEM: Building HERSTORY of an Inclusive World'를 주제로 세계 각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이 모여 STEM 분야의 포용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대회 첫날 열린 INWES Annual General Meeting & Board Election에서는 INWES의 주요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회원국 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KWSE 임혜원 박사가 INWES Board Member로 선출되어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에서 한국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ICWES20 기간에는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와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Youth Empowerment' 세션에서는 각국의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 및 경력개발 과정에서 경험하는 요구와 어려움을 공유하고, INWES 차원의 네트워킹·멘토링 및 국제교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KWSE 홍보부스를 운영해 주요 사업과 국제협력 프로그램과 WWST(World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를 소개하고 각국 여성과학기술인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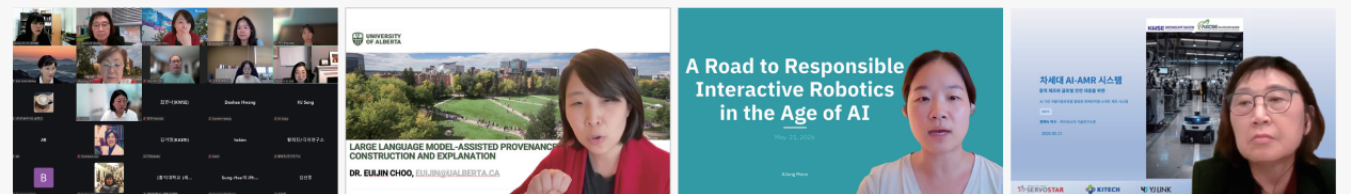
제20차 세계여성과학기술인대회 (ICWES20) 참석



INWES Board Member 선출_임혜원 박사

2026 한국-캐나다 여성과학자 글로벌 웨비나

2026 한국-캐나다 여성과학자 글로벌 웨비나가 5월 21일(목) 'AI and Emerging Global Security Challenges'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국내외과학기술인 39명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표는 University of Alberta의 추의진 교수가 'An LLM-Assisted Provenance Graph Construction and Explanation'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LLM 기반 프레임워크 Auto-Prov를 활용해 원시 보안 로그로부터 프로비넌스 그래프를 자동 생성하고, 다양한 로그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동작하는 그래프 기반 이상 탐지 기술과 자연어 기반 공격 설명 방안을 소개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McGill University의 문아정 교수가 'A Road to Responsible Interactive Robotics in the Age of AI'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인간-로봇 상호작용(HRI)과 AI 윤리 관점에서 휴머노이드와 지능형 시스템의 사회적·윤리적 위험성을 살펴보고, 책임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인간 중심 AI·로봇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발표는 ㈜서보스타의 황혜숙 소장이 '동적 제조와 글로벌 안전 대응을 위한 차세대 AI-AMR 시스템'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멀티모달 센서와 AI 기반 자율이동로봇(AMR)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 기술과, 산업 현장의 생산성·안전성 및 인간-로봇 협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용 방안을 소개하였다.



한국-캐나다 여성과학자 글로벌 웨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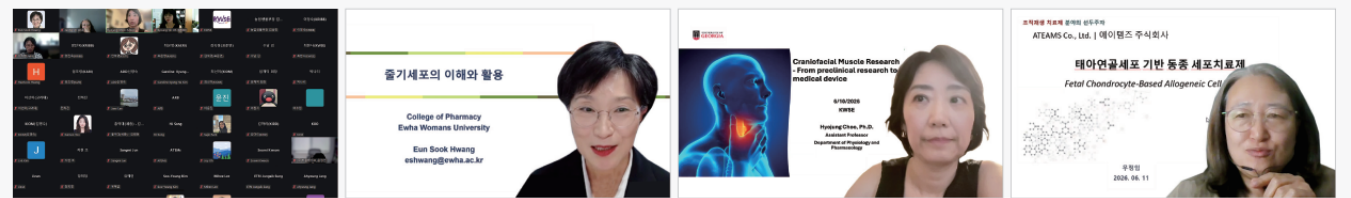
추의진 교수

문아정 교수

황혜숙 소장

2026 한국-미국 여성과학자 글로벌 웨비나

2026 한국-미국 여성과학자 글로벌 웨비나가 6월 11일(목) 'Lifespan: Predict, Protect, Personalize'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국내외 과학 기술인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줄기세포 연구부터 의료가기 개발, 차세대 세포치료제에 이르기까지 재생의학 분야의 최신 연구와 산업화 전략이 소개되었다. 첫 번째 발표는 이화여자대학교 황은숙 교수가 '성체줄기세포의 이해와 치료 활용'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성체줄기세포의 생물학적 특성과 재생의학적 활용 가능성을 소개하고, 줄기세포 분화 조절 기전과 근골격계·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질환 치료를 위한 최신 연구 동향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University of Georgia의 추효정 교수가 'Craniofacial Muscle Research and Medical Device Development'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비만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와 연하곤란 진단 의료가기 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기초 연구의 임상 적용과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표는 ATEMS 주식회사의 우정임 이사가 '태아연골세포 세포치료제: 재생의학부터 임상까지'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태아연골세포 기반 동종 세포치료제의 특성과 임상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무릎 연골 및 추간판 재생을 위한 차세대 세포치료제 개발과 플랫폼 구축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미국 여성과학자 글로벌 웨비나

황은숙 교수

추효정 교수

우정임 이사

KWSE

NEWS

2026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

2026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가 7월 7일부터 8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글로벌 시시대,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개최됐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는 조직 위원으로 참여한 임채덕 회장을 중심으로 세계한인여성과학기술인포럼 운영에 참여하고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기관 및 단체와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하였다. 7월 8일 열린 세계한인여성과학기술인 포럼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글로벌 역할과 지속 가능한 협력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CDC) 문성실 책임연구원은 한·미 여성과학자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차세대 연구자 국제 진출 지원, 글로벌 여성 STEM 네트워크 확대, 포용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제안하며 국제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박소정 교수는 다양성과 호기심이 융합연구의 원동력을 소개하며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개방형 연구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아이트호벤 공과대학교 장한빛 박사후연구원은 한·EU 협력이 기술 개발을 넘어 제도와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지속가능한 과학 기술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



홍보부스

임채덕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천혜정 노르웨이 카트베르케트 선임엔지니어, 손민영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문애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 협력 확대와 차세대 리더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여성과학기술인이 글로벌 연구협력의 참여자를 넘어 기술과 제도, 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주체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발표와 토론에서는 국제 공동연구 확대,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글로벌 여성 STEM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기술 혁신과 사회적 포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AI 시대의 과학기술 협력이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세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개방적 연구생태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men Scientists to Market 참석 및 발표

베트남지식여성협회(VAFIW)와 UN Women이 공동 주최한 국제회의가 6월 10일(수) 베트남 하노이에서 ‘Women Scientists towards the Market: Building an Ecosystem to Support Women Scientists in the Green and Digital Economy’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 투자기관, 국제기구 등 180여 명이 참석해 여성과학자의 연구 성과를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임채덕 회장이 한국 대표로 초청되어 국제 협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였다. 회의에서는 여성 연구자의 높은 연구 참여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와 기술창업 단계에서 여전히 제도적·환경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공유되었으며, 연구기관·기업·투자기관 간 협력 강화와 사업화 지원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한국, 핀란드, 캐나다, 영국, 호주 등 해외 우수사례를 통해 여성 과학자의 기술 사업화와 창업 지원 정책이 소개되었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men Scientists to Market



임채덕 회장

임채덕 회장은 ‘How Korean Government Legislation Supports Women in STEM Fields’를 주제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며 제1차부터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까지의 주요 특징과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확대, 경력 유지, 승진 기회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 제도와 출산·육아 지원,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의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여성 인재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여성 과학자의 연구 성과가 기술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용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녹색·디지털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과제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KWSE 제3회 이사회

2026년 7월 28일(화)

대전, 시청자미디어재단 대전센터 일반교육실2

보고안건 2026년 제2회 이사회(확대) 회의록 보고 / 위원회별 활동보고 / 회장단 활동보고

논의안건 정관 및 회장선거 시행세칙 개정

의결안건 회원인준/포상심사위원회 구성/ 제16대 운영위원 승인



수상 “축하합니다.”

이지연 (아주대학교)	- 한국뇌신경과학회 (KSBNS) 신경교세포분과 주최 정기학술대회 'Future Glia Scientist' 부문 수상(2026. 2. 27.)
김도연 (주식회사 세라)	-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World-OKTA (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Economic and Trade Associations) 주최 글로벌 AI 피칭 대회 혁신상 수상(2026. 3. 31.)
정영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표창(2026. 6. 23)
김주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26년 제27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장려상 수상(2026. 7. 3.)

인사 “축하합니다.”

김미혜 (충북대학교)	- 전자정보대학 학장 선임(2026. 3. 1.)
윤혜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 취임(2026. 6. 15.)
조효진 (한국재료연구원)	- 전략연구실장 보임(2026. 3. 16.)
최 선 (이화여자대학교)	- 재단법인 목암생명과학연구소 이사 선임(2026. 4. 22.)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비상임이사 선임(2026. 6. 12.)
한승희 (목포해양대학교)	- 해수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원장 취임(2026. 7. 20.)

KWSE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 KWSE 회원은 입회원서 제출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강상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권수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다연	국립농업과학원	김민정	창공
김선영	국립농업과학원	김선중	아트텔링테크놀로지	김소리울	강원대학교	김순남	국가신약개발재단
김채영	국립부경대학교	김현정	제주대학교	김화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채희	서울연구원
박혜리	동아대학교	석지아	한국한의학연구원	성은하	차병원	송윤희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양승숙	(주)수건축사사무소	양진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우상아	(주)엔에스일렉트릭	윤재남	(주)스킨메드연구소
이소연	서울대학교	이윤경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이윤경	제주대학교	이은서	국립부경대학교
이주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지연	싸잉	이해숙	(주)SAP분석평가연구소	임규리	국립부경대학교
정인경	동아대학교	주보현	국립부경대학교	최수연	제주대학교	최영림	동아대학교
최진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상소감



2026 과학기술· 정보통신 유공자 정부 포상

정부는 과학의 날(4.21.)과 정보통신의 날(4.22.)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과학·정보통신인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황조 근정훈장



백은옥 한양대학교

인공지능을 바이오·의료 융합연구에 접목한 공로로 훈장을 받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연구해 온 학생들, 동료 연구자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공동연구자들과 이 영예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간 제가 수행해 온 연구는 질량분석 기반 단백질체 데이터와 유전체·전사체 데이터를 AI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통합 해석하여, 암과 같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찾아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이오·의료 연구에서는 방대한 분자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질병의 원인, 진단 단서, 예후 예측 인자, 치료 표적을 찾아내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최근 AI의 발전은 이러한 고차원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정밀의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환자 개개인에게 더 적합한 진단과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산학 박사학위를 받은 제가 생물정보학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6대 회장을 역임하신 이화여대 이공주 교수님과의 공동연구였습니다. 이후 생명과학을 시작으로 의학·약학, 화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기쁨을 누렸고, 서로 다른 관점과 전문성을 모아 새로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제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AI 기술이 의생명 연구에 실제로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지치지 않고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큰 동력이었습니다.

AI는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성과학기술인에게 큰 가능성을 열어 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를 더욱 활발히 펼쳐 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약력

- 現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데이터분과장
- 現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 前 한국정보과학회 부회장
- 前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 前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이사

혁신장



차미영 한국과학기술원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수훈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여전히 믿기지 않을 만큼 벅찬 감동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 상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AI)이라는 차가운 기술로 사회 난제를 해결한다는 비전의 가능성을 믿어주신 대한민국 과학계의 따뜻한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연구를 이어오며 항상 쉬운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커리어 덕분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자산을 얻었습니다. 한국, 스페인, 영국, 미국, 독일을 거쳐 KAIST, 기초과학연구원(IBS), 막스플랑크 연구소(MPI), AT&T, 텔레포니카, 메타(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최고의 과학자들과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를 깊이 배웠습니다. 큰 비전은 결코 혼자서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귀한 인재를 모시고, 이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수평적 문화를 구축하며, 장기간의 집단 연구를 통해 함께 '과학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리더십이자 데이터 과학의 매력입니다. 이번 수상 역시 뜻을 함께해 준 연구팀의 소중한 시간, 열정, 아이디어가 모여 가능했던 결과이기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제 연구의 비전은 언제나 '인류를 위한 데이터 과학(Data Science for Humanity)'입니다. 위성 영상으로 소외 지역의 슬럼(slum)을 탐지하여 돕고, 미래 사회의 군집 AI가 불러를 가짜정보와 민주주의의 위협을 사전에 연구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연구는 당장의 이득보다 미래 세대에 이르러야 진정한 가치가 증명되는 '장기적 보상(Long-term Reward)'의 영역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제 연구에 아낌없는 신뢰와 지원을 보내 주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지구적 난제를 앞장서 해결하는 세계적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깊은 자부심을 가지게 합니다. 2년 전부터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단장직을 맡아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국제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우리 연구자들의 기여가 세계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젊은 후학들이 국경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력

- 現 카이스트(KAIST) 전산학부 교수
- 現 독일 막스플랑크 보안 및 정보보호 연구소(MPI-SP) 단장
- 前 기초과학연구원(IBS) CI(Chief Investigator)
- 前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 前 미국 메타(Meta/Facebook) 방문교수

과학기술포장



김수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뜻깊은 포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은 한 개인 연구자의 성과라기보다, 오랜 시간 함께 연구해 온 동료 연구자와 선후배, 그리고 연구를 지원해 주신 기관과 협력자들이 함께 만들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약학과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천연물이 가진 생명 조절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적 가치로 연결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자연 속 생명자원의 잠재력을 현대 생명과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새로운 기능성 바이오 소재로 발전시키는 것이 천연물 연구의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동안 천연물 유래 소재의 약리활성을 연구하며 피부장벽 회복, 아토피 피부염 개선, 항염증, 항산화 및 피부 노화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인삼 유래 성분인 Compound K의 피부장벽 조절 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능성 소재 개발과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수한 연구 성과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과학기술인 활동에도 참여하며 지역 여성 연구자들의 역량 강화와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성과학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후속 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역시 미래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천연물 기반 바이오 연구의 가능성을 넓히고, 우리나라 생명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연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영광을 함께 만들어 주신 KWSE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력

- 現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부회장
- 現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학술위원장
- 現 강원과학기술위원회 위원
- 現 대한화장품학회 편집이사
- 現 고려인삼학회 회원네트워크위원장

과학기술포장



김은성 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먼저 저를 과학기술진흥 포장 대상자로 추천해 주신 KWSE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수상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회장님과 임원들, 사무국 직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기에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획은 그럴듯했지만 변화무쌍한 세월 속에서 많이 어긋났고, 주변의 조언은 초지일관 뼈를 때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연된 꿈의 실현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실천한 딱 한 사람을 믿으며 달리고 달려, 저는 커뮤니케이션 연구자가 아닌 홍보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공공기관에서 홍보 업무를 하다가 KWSE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커리어 후반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업무를 하면서 KWSE 회원분들과 더욱 긴밀하게 일했고,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은 연구와 달리 업무를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과 저의 기억 속에, 그리고 사진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크나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은 사람들의 사고와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요, 일하면서 만났던 국내외 연구자분들은 저에게 많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의 선생님이 되어 주셨던 과학기자분들, 함께 일했던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분들, 저를 알아봐 주시고 크고 작은 기회를 주셨던 분들, 모든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원조 경력단절여성의 20년 커리어에 뜻깊은 마침표를 찍어주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와 회원분들,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국가에 감사드립니다.

- 약력
- 前 기초기술연구회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홍보팀장 등(2009-2024)
 - 前 한국학술진흥재단 홍보팀장(2006-2009)
 - 前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홍보위원장(2024-2025)
 - 前 세계과학기술자대회 유치 및 개최 실무총괄(2013-2015)

과학기술포장



이현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저한테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지난 2025년, 올해의 여성과학자상을 수상했을 때 받았던 수많은 축하 메시지에 저는 이렇게 답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 포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을 받게 되면서, 저는 오늘도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4년, 석사를 막 마치고 KIST에 입원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변화무쌍한 시간 동안 여러 일이 있었지만, 최근 동료들과 함께 연구했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대기업에 기술이전 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마치 축포가 터지듯 과분하고 좋은 일들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돌아보면 박사 학위를 받은 것, 연구자로서 KIST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것, 뜻깊은 상을 받고 보직을 맡아 기관에 봉사하게 된 것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매 순간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연구가 참 재미있습니다. 동료들과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도 즐겁고, 학생들과 실험 결과를 놓고 분석하며 '다음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상상하면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연구자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연구자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이 행복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약력
- 現 고려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U-KIST) 융합대학원 원장
 - 現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現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KIST School 교수
 - 現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심의회의 위원
 - 前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스쿨 대표교수

대통령표창



박소정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대통령표창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상은 저 혼자 성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연구하며 도전에 온 학생들과 연구실 구성원들, 공동연구자들, 그리고 늘 응원해 준 가족과 동료들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상이라 생각합니다.

연구를 시작한 이후 저는 늘 "아직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질문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새로운 나노물질과 기능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기존의 틀을 조금이라도 넓히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연구는 예상대로 흘러가기보다 실패와 시행착오의 연속인 경우가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연구자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융합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문 분야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연구를 개척하고, 다음 세대 연구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더욱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선배 연구자들의 격려와 도움을 받으며 성장해 왔듯이, 앞으로는 후배 연구자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함께하는 연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뜻깊은 상으로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력
- 現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現 혼성계면 화학구조 연구센터 단장
 - 現 ACS Appl. Mater. Interfaces 부편집장
 - 現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 前 펜실베이니아 대학(미국) 조교수/부교수

대통령표창



서옥이 한국연구재단

안녕하세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원 여러분!

이번 제59회 과학의 날을 맞아 영광스럽게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어 깊은 감사와 영광을 느낍니다. 수상소감을 통해 KWSE 선후배님들께 인사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상을 받으니 지난 30여 년간 연구 현장에서 함께 했던 동료들과 치열하게 고민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기쁨이기에 앞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해주신 동료 연구자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연구자분들이 연구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고민해왔습니다. 특히 생명과학, 나노, 의학학 등 학문 분야 특성을 세심하게 담은 평가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집중했고, 데이터에 기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지원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연구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구자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현장의 언어로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이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준 동료 여러분과 KWSE 회원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력
- 現 한국연구재단 의학학단 연구사업관리담당관(Program Officer)

대통령표창



이유경 극지연구소

북극의 척박한 툰드라 위에서 엄지손톱보다도 작은 꽃을 들여다보면 제가 대통령표창이라는 큰 영예를 안게 되니, 지난 시간이 한 장면의 영화처럼 스쳐 갑니다. 바람조차 몸을 낮추는 그 차가운 땅에서, 짧은 여름을 놓치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피어나던 꽃들. 그 작고 강인한 생명들이 제게 건넨 이야기를 좇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스발바르와 그린란드,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극의 툰드라를 누비며 식물과 토양, 미생물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좇았던 그 길은 결코 혼자 걸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산과학기지에서 함께 백야를 새운 극지연구소 연구자들, 과학자로서 정규직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앞서 길을 닦아 주셨던 선배 여성과학자들, 그리고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준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걸음을 이끈 것은 하나의 단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앞서 간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미리 포기하지 않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자 연구실을 거쳐 간 학생들에게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툰드라에 피는 꽃의 이야기와 극지가 보내는 경고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책과 강연으로, 방송과 교실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며 극지과학을 우리 곁으로 가져오려 한 까닭입니다. 또한 북극이사회 산하 “북극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AMAP)”과 “북극과학위원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내고, 다음 세대 연구자들이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는 일에도 마음을 다했습니다.

이번 표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 여깁니다. 지구의 가장 차가운 곳에서 들려오는 변화의 신호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 과학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게 살아 있는 지혜가 되도록 변함없이 연구하고 나누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속도에 떠밀려 북극에서 서둘러 자리를 잃어 가는 멸종위기 식물들을 지키기 위해, 과학자로서 제게 남은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영광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앞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 주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약력**
- 現 대한민국2045전략수립위원회 과학기술분과 위원
 - 現 북극이사회 AMAP 대한민국 대표
 - 現 지속가능북극관측네트워크(SAON) 이사
 - 前 한국우주생명과학연구회 회장
 - 前 국제우주연구위원회(COSPAR) 한국위원회 위원

대통령표창



황은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큰 영광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오랜 시간 함께 연구해 온 동료와 선후배 연구자들,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제가 꾸준히 매진해 온 뇌질환 연구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뇌세포막 이온채널 단백질의 새로운 기능을 규명하기 위해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결합단백질을 발굴하여 이들이 뇌질환 발생에 미치는 역할을 연구해 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는 다양한 형질전환생쥐를 활용한 생체 연구와 융합연구를 통해 질환의 병리기전을 규명하고, 기초연구를 실제 치료기술로 연결하기 위한 신약 개발 플랫폼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난치성 뇌질환의 새로운 치료 표적과 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기초과학의 성과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수상을 더 큰 책임과 격려로 받아들이고,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KWSE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약력**
- 現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現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전공책임교수
 - 現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 現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위원장
 - 現 고려대-KIST 학연교수

국무총리표창



손지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6년 과학기술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고, 같이 노력해 주신 동료 선후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디지털융합 분야는 시 발전 속도만 보더라도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제조 현장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지능화와 유연화, 자율화로의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조 산업의 혁신 흐름 속에서 기존 디지털 트윈이 가진 확장성의 한계와 실세계 오차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재사용 및 확장가능한’ 제조 디지털 트윈 표준모델과 실행 엔진을 개발하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인정받기까지, 수많은 제조 현장을 다니면서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 연구실 동료들과 협력 기관 관계자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특히 선 굵은 제조 현장에서 여성 과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디지털융합 기술의 난제를 해결하고, 구축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증가 등의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며 연구자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국제 표준화의 병행 추진을 통해서 연구개발 기술이 국제 표준안에 반영됨으로써 파급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실과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모든 여성 과학자 동료 및 후배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피지컬 AI 영역으로 확장하여 국가 전략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후배 여성 과학자들에게도 용기와 자신감을 잃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연구자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약력**
- 現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 現 한국CDE학회 사업이사
 - 前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전문위원

국무총리표창



조경숙 이화여자대학교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큰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취라기보다 오랜 시간 함께 연구하고 교육하며 힘을 모아주신 동료 연구자, 제자들,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받은 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8년간 환경생물공학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며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악취와 온실가스의 생물학적 저감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악취와 메탄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의 현장 적용과 상용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이었습니다.

연구자로서 국내외 논문 300여 편, 특허 60여 건, 기술이전 성과를 이루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는 훌륭한 제자들과 여성 환경공학인을 양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5년부터 생활과학교실 책임자로 활동하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과학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과학기술평화 확산에도 힘써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는 많은 선후배 연구자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활동은 연구자로서의 성장뿐 아니라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KWSE 선후배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과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과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력**
- 現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現 이화여자대학교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 책임자
 - 現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건설환경공학분과)
 - 現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부회장
 - 現 한국냄새환경학회 부회장

부총리표창 (과학기술진흥유공)



윤정인 ㈜리운바이오

제59회 과학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부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깊은 감사와 영광을 느낍니다. 이 영광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해주신 동료들과 묵묵히 응원해주신 가족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위과정부터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저분자 유기화합물 연구에 매진해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분자가 생명을 구하고 더 나은 삶을 선물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연구를 사업으로 연결하여 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 등 바이오 소재 사업화를 추진하며, 국내 기술 향상과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교양 과학책을 저술하며, KWSE 과학탐구교실 멘토링에 참여하는 등 다음 세대 과학자를 키우는 일에도 힘을 보태왔습니다.

저는 기초과학이 홀대받지 않고 산업의 중심축이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유기합성화학은 바이오 산업 원료 개발의 근간이 되는 기초과학으로, 그 가능성은 아직 무궁합니다.

앞으로도 기술을 차근차근 키워 국내 소재 자국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지치 않고 꾸준히 성장하며,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위한 연구와 기술사업화, 그리고 후학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원 해주신 KWSE 회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약력
- 現 (주)리운바이오 공동대표
 - 現 대전대학교 화장품학과 강·전담교수
 - 現 KWSE 산학연 협력 위원회 위원
 - 前 (사)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3,4기 이사

2026 과학마을 어울림마당 과학대중화 유공 표창



정진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대전광역시 과학대중화 유공 표창을 수상하게 되어 깊은 감사와 영광을 느낍니다. 이번 수상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에서 오랜 시간 대전 지역 학생들을 위한 과학탐구교실을 운영하고 헌신해 오신 분들을 대표하여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4년에 시작된 과학탐구교실은 2025년까지 약 290여 개의 학교와 260여 분의 여성과학기술인이 참여한 뜻깊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대전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나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꾸준히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과 모델동물인 '제브라피쉬'를 직접 관찰하는 '움직이는 실험학습'을 진행할 때, 아이들이 현미경 너머를 바라보며 신기해하고 눈을 반짝이는 모습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과학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과학을 통한 생명과 우리 환경을 이해하는 연구개발에 힘쓰는 것은 물론, 학생과 국민들께 과학의 즐거움을 전하고 관심을 높이는 과학대중화 활동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력
- 現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환경질환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現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생명공학 교수
 - 現 한국제브라피쉬연구회 대외협력이사
 - 前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차세대지원위원회 운영위원

(주)디바스
VR Simulation R&D

3D Visualization × Virtual Reality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경험하는 3D·가상현실 콘텐츠

복잡한 기술과 공간을 직관적인 3D 시각화와 몰입형 가상현실 경험으로 구현합니다.

정밀 3D 시각화 기술과 공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	몰입형 VR·MR 현실감 높은 체험과 상호작용 구현
산업·교육 시뮬레이션 안전하고 반복 가능한 가상훈련	멀티플랫폼 콘텐츠 PC·모바일 WebGL·VR 통합 대응

3D VISUALIZATION
 VR·MR
 DIGITAL TWIN
 INTERACTIVE SIMULATION
 WebGL

주식회사 디바스 | www.dbas.kr | 보이지 않는 기술을 경험 가능한 가치로 만듭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꿈과 도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와 함께 응원합니다.

산업통상부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기원

2024년도 기계로봇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제초기반 생산시스템

광초음파 (Laser Ultrasonic) 비접촉 고속 고정밀 결함 탐지 기술

대형 산업시설물의 결함검사를 위한 이동형 광초음파 검사장비 개발

광초음파 검사기술 기반으로 대형 산업시설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혁신적으로 높입니다.

안정성 강화 선제적 결함 검출로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	검사 효율성 향상 비접촉, 고속 검사로 작업 시간 및 비용 절감
정밀한 데이터 분석 고정밀 신호 분석으로 신뢰도 높은 결과 제공	이동형 자동화 시스템 복잡한 구조물도 손쉽게 검사 가능한 장비

주관연구 개발기관

SERVOSTAR

공동연구 개발기관

KOPI 한국평가기술원

KAIST 한국과학기술원

KCA 한국화학산업협회

수요기관

LG 화학

KPX 제철

함께 만드는 안전한 미래, 기술로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NSelectric
[주]엔에스일렉트릭

믿을 수 있는 전력기기 OEM 전문 파트너, 엔에스일렉트릭

정밀한 정밀 생산 공정과 철저한 품질 관리 기술로 최상의 전력 기기 제품을 생산합니다.

핵심 강점 및 기술력

최첨단 제조 및 가공 공정 정밀 가공부터 조립, 최종 검사까지 전 과정 최적화 공정 체계 구축	엄격한 품질 보증 가혹한 환경에서도 견디는 전력기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 시험·검사 시스템
맞춤형 OEM/ODM 생산 고객사의 요구 스펙에 맞춘 유연하고 신속한 설계 및 생산 라인 운용	

☎ 043-214-7767 | ✉ bsj@ns-electric.kr | 🌐 www.ns-electric.kr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가좌4길 6-1

JY SOLUTION
제이와이솔루션(주)

기술과 신뢰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설계합니다

연구개발부터 인증,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업 성장 파트너, 제이와이솔루션

KEY ACHIEVEMENTS

348 개 기업
| 2023-2025년 기준 |

22,500 백만원
과제선정 지원
| 2024-2025년 기준 |

주요서비스 · R&D / 시제품 기술개발 · BIR&D 컨설팅 · 특허 / 지식재산권 컨설팅 · 인증 / ISO 컨설팅 · 조달 / 판로지원 · ESG / 지속가능경영 · 마케팅 / IR / 노무(인건비) 지원	핵심역량 · 연구개발/시제품/특허 통합관리시스템(ERP) ·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컨설팅 · 인증 / ISO / ESG / 조달 통합 컨설팅 ·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전문가 네트워크 보유	전주기 지원사업 발굴/기획 → 협업/실행 → 성장/지원 → 성과/확산 ✓ 협업 목표 설정 및 네트워크 조성 ✓ 맞춤형 협업 수행 및 정기회의/세미나 ✓ R&D/비R&D, 인증/ESG, 예로기술 컨설팅 ✓ 성과관리 및 분석, 후속연계 및 확산 지원
--	---	--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춤 원스톱 패키지 지원으로 더 큰 가치와 성과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JY SOLUTION(주)

제이와이솔루션

본사 / 연구소

-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 국제교육관 414호 (기술강소특구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220

☎ 070-7785-0919

✉ jysol2023@naver.com

🌐 www.jysolution.co.kr